



코스피(14일)	코스닥
3252.13 (+2.81P)	997.41 (+6.28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116.70 (+5.90원)	1.287% (+0.011%)

글로벌 기업, 환경서 미래 찾는다



그린오션이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세계 각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반도체부터 자동차, 전자, 금융, 식품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경영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기업들은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에 두기 시작했고, 특히 'E(환경)'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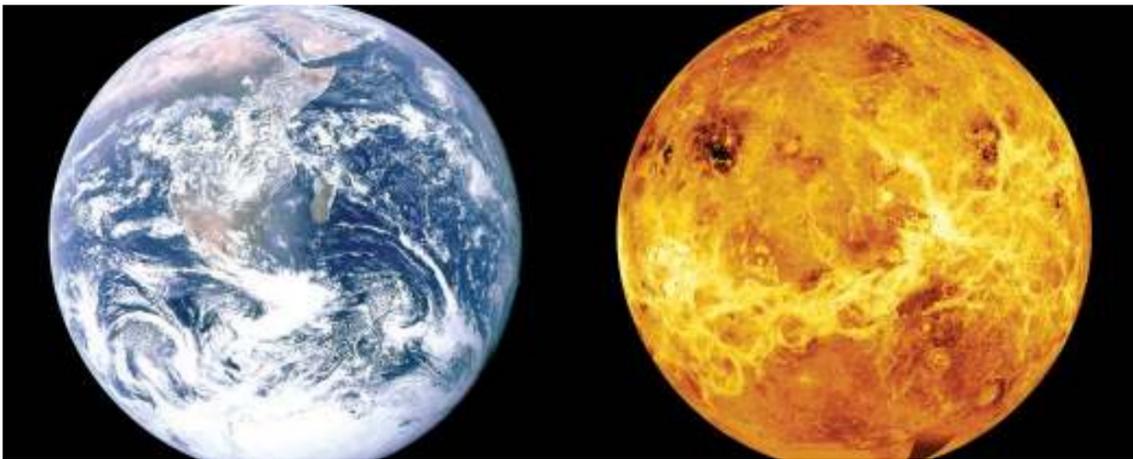
▶관련기사 4·5면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최근 국제해운회의소(ICS)는 세계 각국 정부에 새로운 탄소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해운업계에 2050년까지 배출량을 2008년 대비 70% 감축하라고 지시한 영향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들은 ESG 경영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수정하고 있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과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최근 파타너십을 맺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기업에 6억 달러(약 6777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씨티그룹은 웰스파고와 함께 2050년을 목표 달성 시기로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금융사들도 잇달아 탄소 중립 정책에 동참하며 판을 키우고 있다.

탄소 배출과 직접 연관된 석유·가스업계는 원료 공정 단계부터 노력하는 모습이 다. 최근 저탄소 사업부를 신설한 옥시덴탈페트롤리움은 4월 바이오에틸렌을 생산



금성(사진 오른쪽)은 지구와 크기·질량·밀도 등은 비슷하지만, 폭발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로 물 한 방울 존재하지 않아 '지구의 사악한 쌍둥이'로 불린다. 대기의 97%가 이산화탄소이며, 평균 기온은 섭씨 500도이다. 우리 인류가 사는 푸른별, 지구도 탄소중립이 실현되지 않으면 먼 미래에는 금성처럼 휴먼지투성이의 불모지가 될 수 있다. ※출처:미국항공우주국

②'E' 없이 인류의 미래 없다

세계 각국 환경 규제 강화하며
소산업 탄소제로·ESG 경영 속도
블랙록, 관련기업에 대규모 투자
아미존 등 대기업 '그린오션' 동참

하기 위해 탄화수소 원료를 사용하는 대신 인공 이산화탄소 사용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영국 석유업체 BP는 미국 최대 유전인 텍사스와 뉴멕시코 유전에서 2025년까지 천연가스 부산물 처리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이외에 아마존과 비자, 펩시, 하이네켄, 알래스카항공 등 다양한 분야의 49개사가 기후협약에 서명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

립을 합의하는 등 전 세계 기업들의 ESG 경영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한국도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국내 기업 대응 현황을 발표했는데, SK와 LG화학, 삼성전자, KB금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경련은 글로벌 ESG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투명하

고 일관된 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인센티브 마련, 한국형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보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세계적으로 ESG 기조가 확산하고 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물론, 내수 기업의 활동에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文 “북한 동의한다면 백신공급 적극 협력”

한·오스트리아 공동 기자회견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호프부르크 공에서 열린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 역할을 할 때 북한도 당연히 협력 대상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도국·저소득국이 공평하게 접종해야 비로소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수 있다”며 “한국은 백신 보급을 늘려 전 세계 코로나 퇴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지난해 북한의 방역·보건 협력체 참여를 제안한 데 이어 백신 공급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북한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할 경우 남북·북미 대화 재개의 실마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

서지연 기자 sjy@

금융권, 빅테크發 고용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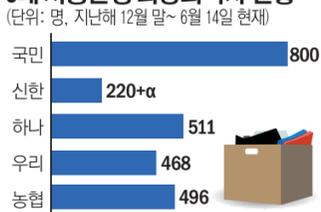
공채 대신 디지털 인재 선호, 청년실업·40대 명퇴자 증가

네이버, 카카오 같은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로 시중은행의 채용시장이 상전벽해가 되고 있다. 희망퇴직 일정이 계절과 나이에 무관하게 상시 체제로 바뀌는가 하면, 공채 대신 디지털 전문인력을 수시채용으로 전환하는 등 기존 관례가 깨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로 좁혀온 금융권 신규 채용이 막히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14일까지 1972년생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1월에 220여 명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후 두 번째다. 반년이 채 되기도 전에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것은 이례적이다. 은행권은 통상 1년에 한 번 연말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게 관례다. 금융권의 희망퇴직이 계절과 나이에 상관없이 상시 체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최근 금융권에선 희망퇴직 규모는 늘고 퇴직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희망퇴직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50대 직원들을 위한 제도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40대도 희망퇴직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만 49세부터다. 국민은행의

5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자 현황



경우 희망퇴직 신청 가능 연령을 지난해 1964~1967년생으로 50대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는 1965~1973년생으로 조정하면서 만 48, 49세들을 희망퇴직 범위에 포함했다.

희망퇴직 연령대가 40대로 낮아지면서 퇴직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달 말까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자는 2500여 명에 달한다. 신한은행 희망퇴직자까지 더하면 규모는 더 커진다.

문제는 떠난 직원만큼 신입직원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공채 대신, 디지털 경력직 인재를 수시채용하는 쪽에 힘을 쏟고 있다.

▶10면에 계속

김범근 기자 nova@

내 가게가 전부인 당신이기에 내 가게에서 모두 가능해지도록

i-ONE 소상공인

i-ONE 소상공인 | 오직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플랫폼
기업·개인 통합뱅킹부터 전문가의 사업정보까지 앱 하나로 누리세요!

기업·개인 통합뱅킹
간편 비밀번호만으로 통합 계좌 관리

대출·기간연장
초저금리특별대출 기간연장 신청 (단, 개별 SMS 통지 받은 고객에 한함)

전문적인 사업정보
소상공인 맞춤 전문 지식과 정책자금 정보 제공

경영 지원
세무, 직원 및 거래서 관리 등 효율적 경영 업무 지원

초저금리대출 기간연장 하고 다양한 혜택 받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1-1185호(2021.03.25) 게시기간: 2022.03.24 ~ 통상통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간 연장 시 이에 대해 연도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연방문하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금융민원(국민연이 1332)에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을 받지 않습니다. 운영정책 위반 사안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cs@ibk.co.kr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쌍용차, 2년 내 회생할 수 있겠나”

이동걸, 자구안에 부정적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쌍용자동차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최근 쌍용자동차 노사가 '2년간 무급휴직' 등의 자구안을 마련한 것에 대해 “노력해준 노사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투자자의 눈으로 보면 ‘쌍용차가 2년 안에 회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노사는 7일과 8일 양일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52.14% 찬성으로 자구안을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무급 휴업 2년 △현재 시행 중인 임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2년 연장 △임원 임금 20% 추가 삭감 △무쟁의 협약 등이다. 이 회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사가 만든 자구안은 회생 계획안에 포함해 잠재인수가 평가하고 그것으로 지속가능성을 판단한 이후에 자금 지원도 결정할

것”이라며 “회생 계획안은 산은과 정부가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계획 없이 제시된 쌍용차의 자구계획만으로는 향후 경영 정상화 판단을 할 수 없어 산은도 언급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쌍용차는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 전 M&A’ 과정에 있다”며 “인수의향자가 없으면 인가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년 조건부 무급휴직은 상당한 희생이나 여전한 인건비로 인해 잠재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인수의향자 후보군에 대해선 “채권단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주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출되기를 희망한다. 쌍용차 노조와 경영진이 협의해서 투자자 관점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노인이 지갑 여는 곳에 투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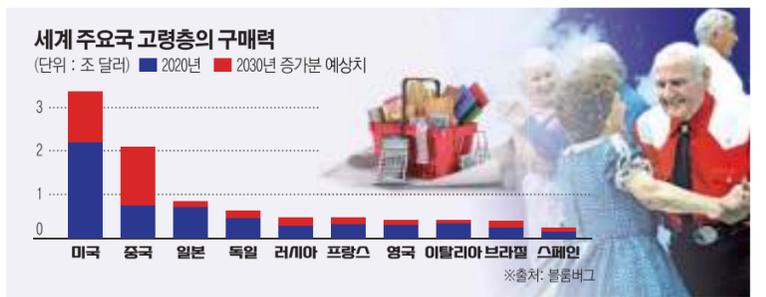
팬데믹 후 새 투자테마 떠올라 늘어난 고령층 소비 물결 예고 의료·명품·여행 등 수요 예상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소비 문화가 세계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전문가들의 진단은 다르다.

전 세계 자산 관리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령층의 소비 물결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면서 ‘노인 소비’를 주요 투자 테마로 삼고 있다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개했다.

전문가들은 부유한 고령층이 의료 서비스와 명품 등에 대해 엄청난 수요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노인들이 인터넷을 강제로 접하면서 전자상거래와 소셜미디어 사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 세계에서 2050년까지 지금의 두 배인 15억 명 이상으로 증가, 고령층의 경제적 영향력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월드데이터랩은 전 세계 노년층의



총지출 규모가 지난해 약 8조4000달러(약 9370조2000억 원)에서 향후 10년 동안 14조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노인 소비시장에서 지배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해 2조2000억 달러였던 65세 이상 인구의 소비가 2030년에는 3조40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기간 중국의 고령층 지출은 7912억 달러에서 2조1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은 7328억 달러에서 8710억 달러, 독일은 4721억 달러에서 6608억 달러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투자회사 J스턴&컴퍼니의 크리스토퍼 로스바흐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구 고령화와 관련된 많은 문제가 가속화했으며 이를 긴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노인들이 경제성장과 투자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간의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는 출산율은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팬데믹 이후 급증할 노인 소비와 관련한 테마로는 △역물린 의료 수요 △여행과 럭셔리 제품 △인터넷 사업과 보험 등이 꼽혔다. 먼저 암 진단부터 고관절 대체수술,

백내장 수술에 이르기까지 전염병으로 억눌렸던 의료 수요가 폭발할 전망이다. IHS마킷은 올해 전 세계 헬스케어 지출이 8조8000억 달러로 전년보다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접 상담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았던 보청기 시장도 올해에는 매출이 정상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행업계와 명품업계도 현금이 두둑한 노인들의 지원으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로스바흐 CIO는 “일반적인 요점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구매력이 증가하고 제품의 양이 아닌 질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라며 “LVMH와 주류업체 디아지오 등의 반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계획되지 않은 조기 은퇴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과 고용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험회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스위스 대표 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의 전략가들은 중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시장에서 보험사들의 성장 잠재력을 예상하고 있다.

새롭게 인터넷 세계에 합류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전망이 밝은 분야로 꼽혔다. 로스바흐 CIO는 “소셜미디어나 화상회의 앱을 처음 사용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락을 취하거나 전자상거래, 배달서비스를 사용한 모든 부모와 조부모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후만다큐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사람들

Imm의 오차
한 팔의 길이
손님의 취향까지

하나하나
파악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에게 맞출 때

완벽한 수트가 탄생한다고 믿는
당신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하는 금융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5년 차 파일럿 이용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맞춤 금융이 가능해지는
저축은행 최초 마이데이터 사업 승인

고객의 니즈에 딱 맞는 금융서비스를 일어서 제공하는
웹캠 개인화 솔루션

NO.1 디지털뱅크 저축은행
웰컴디지털뱅크
웰컴저축은행

*저축은행 부문 누적 영업익 다중보도 1위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부문 누적 영업익 다중보도 1위 (2020년 12월 31일 기준)
월간이벤트 운영시간: 상해점 02-26281200, 02-101

전기신호로 ADHD·우울증 치료 KT, 전자약 사업 나선다

美 '뉴로시그마'와 업무협약

KT가 미국 전자약 개발회사 '뉴로시그마(NeuroSigma)'와 손잡고 전자약 사업에 나선다.

KT는 14일 뉴로시그마와 업무협약을 맺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뇌전증 등의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전자약 분야 제품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협력한다고 밝혔다.

뉴로시그마는 미 식품의약국(FDA)의 신경정신질환 치료 전자약 승인을 최초로 획득한 업체다. 이번 업무협약은 각 사가 마련한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자약이란 뇌와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질병을 치료하는 전자장치다. 천연물질 혹은 화학물질로 만들어진 기존의 약이나 의료 시술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다.

뉴로시그마가 개발한 '모나크 eTNS(Monarch external Trigeminal Nerve Stimulation System)'는 약물이 아닌 전자파로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이다. ADHD를 치료하는 전자약으로는 최초로 미국 FDA의 의료기기 승인을 받았다. 이 기술로 우울증 및 뇌전증 질환에도 적응증(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을 확대하고 FDA 승인을 추가로 받기 위한 임상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KT는 뉴로시그마와의 파트너십을 계기



김형욱(왼쪽) KT 부사장과 레온 액치니 뉴로시그마 최고경영자가 비대면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KT

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한 eTNS 제품의 차세대 버전 설계 및 개발 지원 △KT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한 모니터링과 AI분석 서비스 고도화 △국내 상용화 및 국내 생산거점 구축 협력 등을 추진한다. 기존 ADHD 치료 약물들은 중추신경자극제로 두통, 불안, 중독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 반면 eTNS 전자약은 약물보다 부작용이 경미(식욕증가, 피부자극)하다. 또, 안정성과 효과가 입증돼 기존 신경정신질환 치료 약물의 대체제를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수요가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해 말 최고경영자(CEO) 직속 미래가치추진실에 '디지털&바이오헬스 P-TF'를 신설했다. 올해 김형욱 미래가치추진실장이 디지털헬스산업협회의 회장으로 취임하는 등 헬스케어 분야의 신사업 육성엔 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재계 “경영 위축, 계도기간 필요” vs 勞 “바로 도입”

내달 ‘52시간제 확대’ 두고 경영계-노동계 충돌

경영계 “인력난·코로나에 대비 못해… 탄력시간제로 보완”

노동계 “3년 전부터 시행, 준비 충분… 정부 지원 있어야”

7월 주 52시간제 확대 도입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새로 시행 대상에 포함된 중소기업은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 어렵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며 바로 주 52시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둔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가 50인 미만 기업에도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5개 경제단체는 ‘주 52시간제 대책 촉구 관련 경제단체 공동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지만 기업들의 경영 활동은 여전히 위축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보완책 없이 50인 미만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장에선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도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에 적극 공감하지만, 현실을 고려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뿌리 산업·조선업 중소기업 207곳 중 44.0%가 주 52시간제를 준비 중이거나 준비하지 못했다. 올해

7월까지 준비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도 27.5%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은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 ‘구인난(4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한 주문 예측 어려움(35.2%), 인건비 부담(31.9%) 등의 답변도 나왔다.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는 뿌리 산업의 경우 생산성 저하를 우려하기도 했다. 뿌리 기업 대부분이 고령화된 숙련 인력에 의존해 돌아가는데, 초과 근무로 임금 수준을 유지하던 숙련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면 생산 현장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수주산업이나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업과 건설업 역시 보다 탄력적인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뿌리 산업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채용하기도 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입국 길이 막히면서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올해 목표한 외국인 근로자 수가 4만 명인데 지금까지 1000명밖에 입국하지 못했다”며 “지나해에도 목표 대비 6%밖에 입국하지 못한 데다, 외국인력도 초과근로를 통해 임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경영계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본다. 2018년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만큼 준비 기간이 충분했다단 것이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주52시간제 대책 마련 촉구 경제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반원익,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이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서승원, 한국무역협회 이관섭 상근부회장.

한상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주 52시간 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해 유예기간을 두고 진행한 것인 만큼 정부나 사용자가 이에 맞는 준비를 해야 했다”며 “그러나 정부도 이를 고민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유예를 이야기하는 건 어불성설”

이라고 말했다. 이상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차장도 “지금부터 주 52시간제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처벌을 유예하는 것은 전혀 법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어갈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를 풀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변인은 “노동시간을 줄이기보다는 다단계·수직계열화한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근로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기반을 둔 산업을 끌고 가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대원 기자 leedw@

車 3사 노조 ‘정년 연장’ 입법 청원

60세→최대 65세…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고용 유지” 요구

차 업계 “임금 부담” 난색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의 완성차 3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조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늘리자는 입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다.

14일 3사 노조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개인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접수되고,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는다. 정부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다.

이상수 현대차 노조 지부장 명의로 제출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에 관한 청원’은 국회 검토 절차를 거쳐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일반에 공개됐다. 7월 14일까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넘겨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다’라는 현행법 조항을 출생연도에 따라 차별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청원에 따라 법이 바뀌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까지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

이상수 지부장은 청원서에 “국민연금 수

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정년을 연장한다면 노동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3사 노조 조합원만 해도 9만 명이 넘는 만큼, 노조가 제출한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정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일하며 고용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현대차는 ‘시니어 촉탁직’, 기아는 ‘베터라프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고용 연장 제도를 운영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면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국민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완성차 업계는 난색을 보인다. 전동화 전환으로 생산직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전체 생산 설비가 전기차에 맞춰 교체되면 생산직 일자리는 30~40%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완성차 업계는 전동화에 대응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정년 연장 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임금이 가장 높은 조합원을 5년 고용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업계가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다. 노조는 청원 제출 후 지속해서 정치권에 정년 연장 문제를 강조할 계획이다. 정부도 고용 연장에 관한 방법을 고심하고 있어 정년 연장 이슈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내년 대선과 맞물리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황금알 낳는 그린 비즈니스

탄소시장 규모 \$10,000,000,000

기후위기 대응은 글로벌 기업들의 장기 생존을 위해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급물살을 타면서 'E' 없이는 기업의 미래도 없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탄소발자국 지우기' 움직임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탄소발자국 관리 시장 규모는 올해 98억 9000만 달러(약 11조2224억 원)로 예상되며, 2026년에는 142억 달러로 5년간 연평균 7.5%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대기오염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성장할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블룸버그그룹은 S&P500에 포함된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내세운 기후 관련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을 목표로 제시했던 187개 기후 관련 조처 중 138개가 이행됐고 37개는 이행 중으로 나타났다. 이윤은 단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소관리 시장 연평균 7.5% 성장 전망
테슬라, 1Q 탄소배출권 5억 달러 수익
자선운용사도 탄소절감 기업 적극 투자

매출로 5억1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해 약 15억80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기업이 투자를 받는 데도 영향이 크다. 세계 최대 자선운용사 중 하나로 꼽히는 블랙록은 지난해 화석연료 관련 매출이 25% 이상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글로벌 연기금들도 투자 기업에 탄소배출량 저감 목표 제시하거나 석탄 산업에는 투자를 배제하는 등 탄소 저감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세계 2위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 미국 캘리포니아 공우원펀드(CalPERS), 스웨덴 연기금(AP),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등이 석탄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올해 3월 금융그룹과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100여 곳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탄소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 노력 등을 약속하는 '기후 금융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국민연금 또한 석탄 투자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리서치앤마켓은 "현재 인프라를 저탄소 배출 인프리로 교체하는 데 따른 비용과 다양한 규제 등이 탄소발자국 관리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스모그 사라진 델리, 베니스엔 돌고래 돌아와

코로나가 가져온 뜻밖의 기적

2019년 말부터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지구온난화로 기후 재앙 위기에 놓인 인류에 뜻밖의 희망을 보여줬다. 코로나19로 인간의 바깥 활동과 산업 활동이 줄면서 잠시였지만, 탄소 배출량이 전례 없이 줄어든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긍정적인 기후변화의 여파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 줄었다. 7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덕분에 늘 스모그로 가득 찼던 대도시에는 푸른 하늘이 드러났고, 야생 동물들은 인간에게 빼앗겼던 삶의 터전을 되찾았다. 인류의 위기가 자연에 휴식을 가져다준 셈이다.

세계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도시 중 하나인 인도 델리는 작년 수개월간 대기오염이 49%나 줄었다. 당국이 대기 정화를 위해 수십 년간 수많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 크게 줄자 곳곳서 자연 생태계 회복 신호

정책을 도입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단지 인간의 활동 감소로 해결된 것이다. 작년 3월 한 달 동안 인도 전체의 탄소 배출량은 15% 감소했는데, 인도에서 탄소 배출이 줄어든 건 40년 만에 처음이었다.

기적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인 중국에서도 일어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발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은 도시봉쇄 후 대기오염이 63%나 줄었다.

이외에 세계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줄면서 '로드킬' 당하는 동물이 줄었고, 관광 인파에 시달리던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운하는 바닥을 훤히 드러내면서 돌고래와 물고기와 새, 박조를 맞았다. 미국 백악관은 한때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직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인적이 드물어지자 누리리 등

최근 티베트 고원의 빙하 아래에서 얼어붙은 고대 바이러스 28종을 발견했는데, 빙하가 녹으면 1만 5000년 동안 갇혀 있던 고대 바이러스가 다시 깨어나 새로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각국은 코로나19 충격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이는 지구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얻어낸 환경적 혜택을 무효화할 수 있다.

파리 기후 협정 당사국총장은 "주요 경제국에서 즉각적인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는 청정 에너지 정책을 팬데믹 회복 정책의 핵심에 뒀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빈곤을 근절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구상한 것처럼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재앙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탄소 유발자'서 '환경 지킴이'로

기후대응 선봉에 선 억만장자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세계에 공동 과제로 떠오르면서 글로벌 억만장자들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갑부들로, 그동안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운영해 온 기업이 성장하면서 기후변화의 원인인 탄소 배출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에 대한 '반성'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 빌 게이츠** 청정에너지 펀드 '탄소제로' 노력
- 제프 베이조스** '기후연구 펀드' 100억 달러 투입
- 일론 머스크** 탄소포집 기술 개발에 톡 큰 자금

◇'온실가스 배출 제로' 빌 게이츠=억만장자 중 가장 대표적인 환경 운동가로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를 꼽을 수 있다. 2000년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을 세운 그는 2008년 MS 경영에서 손을 떼 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2월 16일에는 저서 '빌 게이츠,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을 출간해 자신만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추구하는 목표는 명확하다. 바로 온실가스 배출량의 '순 제로(net zero)' 달성이다. 5~10% 수준의 단순 감축이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를 지향하는 것이다. 게이츠는 선진국이 혁신적인 기후 솔루션을 개발해 2050년 말 탄소화하고, 이를 전 세

계로 저렴하게 공급해 대기권에 온실가스를 더는 배출하지 않는 '탄소 제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이츠는 2015년 'BEV(Breakthrough Energy Ventures)'라는 투자 펀드를 설립해 기후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운용 자금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BEV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혁신 벤처에 투자하는 데, 여기에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등도 투자했다.

◇'탄소포집 기술 개발하면 1억 달러' 일론 머스크=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억만장자 중 하나다. 머스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녹색 에너지 사용 확대를 목표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 '탄소세' 지지자인 머스크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지난 4월 머스크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연간 1000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포집할 수 있는 실험장 해법을 공모하는 '엑스프리이즈-탄소제거(XPRIZE Carbon Removal)' 프로젝트를 시작한 바 밝혔다.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 1억 달러(약 1100억 원)의 상금을 약속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채굴 시 심각한 탄소 배출을 이유로 자사 차 구입 시 비트코인 결제를 철회했다가 이를 다시 반복해 비판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 연구펀드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세계 최대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도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7월 아마존 경영 일선에 서 물러나는 베이조스는 지난해 기후변화 대응을 목



적으로 한 연구 펀드 '베이조스어스펀드(Bezos Earth Fund)'를 만들었다. 이 펀드는 차세대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각종 연구 프로젝트에 2030년까지 100억 달러를 쏟아부을 계획이다. 그동안 베이조스는 아마존이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 베이조스는 어스펀드의 첫 수혜자를 발표, 세계자연기금(WWF)과 국제자연보호협회(TNC), 천연자원보호협회(NRDC), 환경보호기금(EDF), 세계자연연구소(WRI) 등에 7억9100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st@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 전 세계 ‘기후 대응’ 맞손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 11월 재개 각국 정상들 간 활발한 논의 기대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 마련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맞선으로 밀렸던 전 세계의 기후변화 문제는 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연기됐던 정상회담은 다시 일정이 잡혔고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 간 협력의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제시된 목표들이 추상적이었던 만큼 좀 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코로나19로 취소됐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는 올해 11월 1~12일 열린다. COP26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맺어진 후 기후변화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회담으로 평가된다. 올해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커진 탓에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도 크다.

바티칸 교황청에 따르면 4월 26일 '지구'의 날 행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COP26 참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황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구와의 상호의존성이라는 가르침을 줬다"며 "우리는 한계에 다다랐고,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회담은 각국이 자연을 돌보고 책임지도록 장려하고

정 운영 최우선 순위로 삼는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서 또 한번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의 2060년 탄소 중립 공약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던 인도와 주변 신흥 시장에 대한 압박을 줄여줄 것"이라며 "(명확하지 않은 계획은) 화석 연료 업계가 산업을 재편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올해 있을 COP26를 포함해 향후 탄소 중립 정책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액션이 나와야 할 때라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영국 싱크탱크 소셜마켓파운데이션(SMF)의 에이미 노먼 애널리스트는 최근 BBC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인들은 대중을 '논의의 참여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기차와 배터리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패키지와 더불어 공공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경제적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어떠한 의미를 주는 지 다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대환 기자 kodae0@

있다"며 전 세계 협력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이와 별개로 4월 한국과 일본을 순방한 알록 사마 COP26 의장은 회담에 앞서 양국 총리·장관들과 주요 시안에 대해 사전 논의하는 등 전 세계를 돌며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작으로 '교토 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까지 그간의 합의들은 국가별 공약을 확정하고 이행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 정책은 과거 미국이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 강대국 한 힘겨루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최근에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놨지만, 석탄에 중독된 국유 산업과 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던 지방정부의 계획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기후변화를 국

反中연대 나섰지만 美·中사이 눈치보기 급급 유럽 G7 '복잡한 속내'

공동성명서 대만해협 등 중국 공세 마크롱 "적대 그룹 아냐" 발언 신중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을 정조준했다. '다시 돌아왔다'는 미국에 나머지 G7이 반중 연대를 하며 화답했다. 다만 이들의 속내는 제각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7 정상회의는 13일(현지시간) 정상회의의 폐막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G7 정상회의의 공동선언문에 대만 해협에 관한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을 겨냥한 언급은 이번만이 아니었다. 홍콩 민주화 탄압, 동·남중국해 진출, 글로벌 공급망, 일대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 재조사 등 여러 방면에서 대(對)중국 공세에 대한 문구가 이어졌다. 사실상 그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쏟아냈던 발언들이 고스란히 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내내 전 입자인 '도널드 트럼프 흔적' 지우기에 나서면서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이 자유 세계의 협력적인 지도자로 돌아왔다"고 호평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상쾌한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G7에 중국에 대한 공동의 압박을 요구하면서 백신 기부로 그동안 백신을 비축하고 있다는 동맹국의 불만을 잠재웠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를 앞둔 10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5억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저소득국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여기에 향후 2년에 걸쳐

G7 정상회의의 공동성명 주요 내용

대중국

- 신장 위구르 주민과 홍콩 인권 존중 요구
- 대만해협 평화와 안전 중요성 강조
- 동·남중국해에서의 현상 변경·긴장 고취에 반대
- 국기에 의한 강제노동에 대한 우려

도쿄올림픽

-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형태로 개최 지지

코로나19

- 2022년까지 팬데믹 수습

경제

- 내년 백신 10억 회분 공여
- G7 재무장관회의에서 법인세 최저세율 15%대 합의 추진
- 공급망 리스크에 대처하는 매커니즘 검토

기후변화

- 각국의 2050년까지 '실질 제로' 목표 대응 약속

추가로 10억 회분의 백신을 기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G7 정상들도 내년까지 백신 10억 회분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바이든도 이번 회의의 결과에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정상회의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회의의 테이블에 함께 있던 나머지 G7 정상회의의 속내는 달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일부 정상들은 대중국 발언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국제 무역) 규칙을 완전히 존중할 것으로 기대하는 경제적 라이벌"이라면서 "G7은 중국에 적대적인 그룹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유럽 일부 정상들은 코로나19 기원 재조사를 지지한다고 했지만, 중국 기원설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중국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미국 경제를 예상보다 빨리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반중국 메시지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文, 오스트리아 의장대 사열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비엔나 호프부르크궁 발하우스 광장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대통령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비엔나(오스트리아)-연합뉴스

이주열, 10월에 금리인상할 듯

추가 인상은 내년 하반기 가능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사실상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시장 관심은 그 시기와 횟수에 쏠리고 있다.

14일 채권시장 금리(국고채 3년물 기준)는 1.287%를 기록해, 한때조건부채권(RP) 7일물 금리인 한은 기준금리(0.50%)와의 격차를 78.7bp까지 벌렸다(1bp=0.01%p). 이는 3년 1개월 만에 최대치로 내년 말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한 수준이다. 시장은 이 총재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말까지 두 번의 금

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역점사항 1순위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질서 있는 정상화를 꼽았지만 임기 내 금리 인상은 올 10월 한 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추가 금리 인상도 내년 하반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상한 11월 집단면역 달성은 9-10월로 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대선 일정 변경과 연 12회에서 8회로 축소된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일정 등을 고려하면 12월은 금통위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올

해 금리 인상을 한다면 10월이 적절하다.

다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가계부채 등 민간 신용 급증은 속도감 있는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내년 3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대선)도 부담이다. 정치변수는 통화정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 왔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경제 외적 이벤트도 많다. 3월 9일 대선을 시작으로, 3월 말 이주열 총재 임기 종료, 5월 10일 20대 대통령 취임, 5월 12일 임지원 금통위 퇴임이 예정돼 있다. 이런 이벤트가 포함됐던 달 기준금리가 변경됐던 사례는 5차례에 불과하다. 김남현 금융전문기자 kimnh21c@

셀트리온 "렉키로나 글로벌 임상3상 효능·안전성 입증"

교육부, 2학기 전면등교案 이달 발표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에 대한 임상 3상 결과 효능과 안전성을 나타냈다는 톱 라인(Top Line) 결과를 발표했다.

14일 김성현 셀트리온 의학본부장은 "렉키로나(40mg/kg)를 투여한 환자군은 위약 환자군과 비교해 중증 악화율이 고위험군 환자에서 72%, 전체 환자에서 70% 감소했다"며 "임상적 증상 개선까지 걸린 시간

또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4.7일 이상 단축됐고, 전체 환자에서는 4.9일 단축돼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1월부터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전 세계 13개국에서 1315명의 대규모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했다.

14일 코로나19 확진자는 399명으로 382명을 기록했던 올해 3월 29일 이후 77일 만에 300명대를 기록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기자단과 브리핑

에서 "다양한 학교에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등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전·오후반 등 시차제 등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수도권 중학교는 3분의 2까지 등교를 확대하고, 전국 직업계고는 전면 등교를 시행하지만 시차 급식제 등으로 방역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언급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박미선 기자 only@

안전은 권리입니다

사망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 산재예방시설 용자금 지원사업으로 함께 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운영에 풀치가 아픈데..

아직도 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되는 용자금 지원을 받지 않으려하?

뭐??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를??

올해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니 빨리 신청해!

2,000억원 예산 증액

- 용자금** 3,228억원
- 신청기간** 재원소진 시까지 연중지원
* 5월말 기준 잔여재원 약 1,000억원
- 지원금액** 사업장당 10억원 한도(기 지원 용자금 상환 시 추가 지원)
- 지원조건** 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지원대상** ① 근로자를 고용한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300인 미만 우선지원)
② 산재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고용노동부 승인)

지원 제외 대상

1. 용자신청 이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업장
2. 용자신청 직전년도까지 최근 3년 간 정부지원 정책자금 지원합계가 10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3. 당해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장 (당해년도 자금결정 사업장에 한함)

● 주요지원 품목

- ①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
※ 주요설비명 : CNC 머시닝센터, NC 밀링, 크레인,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 ②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
- ③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④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 신청방법 공단 일선기관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산재예방시설자금 용자지원 신청서류 일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방법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참조

문의 1544-3088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삼성생명 SAMSUNG

다 다른 인생에 다 맞춘 보험.

같은 나이에도
다르게 살아가는 인생
모든 당신의 인생에 따라
끝없이 변화하는 인생보험이 되기 위해

다 다른 인생 즐겁게 나아가도록
삼성생명이 발맞춰 갑니다

인생맞춤
인생보험
삼성생명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14일 당선 후 첫 일정으로 대전시 유성구 갑동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에서 희생자 유족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맨 왼쪽). 이어 광주 동구청 주차장에 마련된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피해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분향했으며(가운데) 오후에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등 첫 상견례에서 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연합뉴스·신태현 기자 holjjak@

이준석 “우리의 파격, 새로움 넘어 여의도 표준 되어야”

대전현충원 찾아 천안함 장병 유족 보듬고 의원들과 상견례서 '파격·공존·포용' 강조 '당내의 예비주자와 文정부 맞설 빅텐트 칠 것'

사실상 첫 공식행보를 시작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쏟아낸 메시지는 다양했지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성'과 추구하는 '가치'는 명확했다.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하되 다양한 생각은 공존해야 하며, 그동안 외면받았던 대상들까지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큰 그릇(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회의 백드롭(배경 현수막) 문구도 '공존의 힘으로, 새로운 내일을'로 내걸었다.

14일 가장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들을 보듬으며 '포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오후엔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통한 의원들과의 첫 상견례를 통해서 강력한 '파격' 의지와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공존'을 강조했다.

당선 후 첫 일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은 이 대표는 "보수정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지만, 보훈 문제나 여러 사건·사고 처리에 관해 적극적으로 못했었다"며 "이를 반성하며 개선의 의지를 담아 방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천안함 희생장병 유족들을 만나선 "보수 정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0년이 넘었는데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을 당을 대표해 사과 드린다"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오늘부터 행하는

파격은 새로움을 넘어 여의도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하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동안 소외됐던 젊은 세대에 대한 포용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유자전거, 키보드 등의 라스트 마일 운송수단, 또 퍼스널 모빌리티에 대한 해박한 이해가 없이는 이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는 이미 친숙하지만, 주류정치인들에게 외면받았던 문제들을 적극 선점하고 다루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따릉이를 타고 출근한 이 대표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커지자 이 같은 생각을 한 것이다. 그는 "서울에서 따릉이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임에도제가 따릉이를 탄 것이 그렇게 큰 이슈가 될 줄 몰랐다"면서 "출퇴근 시간, 국회 내 8개 대역소 따릉이가 부족할 정도로 국회 직원들, 보좌진 이용빈도가 높는데, 역설적으로 정치인 한 사람이 타는 모습이 처음 주목받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또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신임 수석대변인에 황보승희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에 서범수 의원, 특별보좌역(정무실장)에 김철근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선임됐다. 뒤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내의 야권주자들의 공존과 이들에 대한 당의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40%를 돌파한 우리 당 지지율에서 알 수 있듯 야권 대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당 밖의 훌륭한 주자들, 당내 예비 주자들 모두 함께 문 정부와 맞설 빅텐트를 치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밝혔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합당·尹 입당...당면한 과제 '산더미'

홍준표 복당 반발·경험부족도 해소해야

헌정 사상 최초 30대 당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의 문법이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우려도 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등 대권 주자를 한 곳으로 모으는 일부터 국민의당과 합당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국민의당과 합당'이다. 이 대표는 대표가 되자마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직접 연락해 동네 카페에서 만나 등합당을 위해 노력했다. 이 대표는 14일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께서 합당을 주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국민의당과 통합 같은 것도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고 말한 만큼 합당 논의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전망이다.

두 번째 과제는 윤 전 총장 입당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얘기했다. 이 대표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8월 중순-말이면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분한테 충분한 시

간"이라며 윤 전 총장 입당을 압박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복당도 과제다. 홍 대표는 전당대회 전인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복당을 공식적으로 요구했지만, 당은 신임 대표 취임까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당내에선 홍 의원의 복당에 비판적인 시선이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됐다"며 "저희 중에 원칙적으로는 홍 의원의 복당에 반대는 없었다"고 밝혔다.

당내 교통정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중진 의원들이 지적하는 '경험 부족'도 해결해야 한다. 당내 한 재선 의원은 "한 번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앉았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비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인행이 가벼운 게 있어서 당원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걱정했다.

비서실장에 서범수 의원, 수석대변인에 황보승희 의원 등 주요 직책에 원내 인사를 임명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소통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을 만나 "우리의 목표는 대통령 선거 승리가 되어야 한다"며 "그 목표를 잊지 않았다"고 다짐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홍남기 “추가세수 일부 나랏빚 상환 검토”

2차 추경 재난지원금 축소 가능성... 與와 충돌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6월 말로 예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국가채무 상환 일부 반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차 추경을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전 국민 지원보다는 선별 지원을 강조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염두한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6월 말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작업과 추경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의 발언은 2차 추경을 앞두고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초과 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을 피해 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어서 여당과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세수 상황을 보고 올해 최종 세수 전망치를 확정(기존 전망 283조 원)할 예정인데 4월까지 진도율(47.2%)을 보면 올해 세입 실적 예상치는 31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대 32조 원을 2차 추경에 투입할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를 지방교부세 등으로 사용하고 나면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20조 원 안팎이다. 홍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총리는 이 중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대 30조 원의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있는 여당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4인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은 총 14조3000억 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더해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관련 피해 지원 사업도 모두 2차 추경에 담겨야 한다. 여당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교부한 자금 일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주중에 하경정 잔여 정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국힘 입당?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침묵 깬 윤석열 지지율 40% 육박

우당 기념관 개관식 등 본격 활동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사진)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그동안 공식 발언 없이 침묵하던 윤 전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거취와 향후 행보 등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며 지지율도 40%대에 육박했다.

윤 전 총장은 14일 이동훈 대변인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 등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이 불려서 나왔다"며 "가리키는 길대로 따라간다고 말씀드렸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며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에게 "일요일 오전에 당 대표 취임 축하한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며 "이 대표도 문자로 답했다. 입당 문제는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국민 한 사람으로서 관심이 크다"며 "기대가 크다"고 얘기했다.

윤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낸 건 9일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에서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조금 지켜봐 주시라"고 말한 게 처음이다. 이후 이 대변인 등 공보 담당자를 임명한 후 이날 공식



메시지를 내는 등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모양새다.

활동을 시작한 윤 전 총장의 기세는 여론조사에도 나타났다. 전날 머니투데이와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PNR리서치에 의뢰해 12일 하루 동안 전국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은 39.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2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2%, 3위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3%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전 총장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김용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한때 저에게 국가문란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윤 전 총장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다면 사과할 일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과몰탄개(過勿憚改-잘못을 깨닫거든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는 뜻)를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준상 기자 jooon@

美기업, 코로나 고비 넘자 '인력 이탈' 골머리

4월 이직률, 21년 만에 최고치 인플레 우려에 경영악화 겁악재 연준 테이퍼링 시간표 조정 고심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터널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재개했지만, 기업들의 고용 상황이 악화일로다. 사상 최악 구인난에 이직률도 21년래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 같은 일자리 문제는 15~16일 통화정책 기초 방향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시름을 깊게 한다.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에 긴축 카드를 쓰자니 인력난으로 기업들이 허덕이는 와중에 상황을 악화시켜 자칫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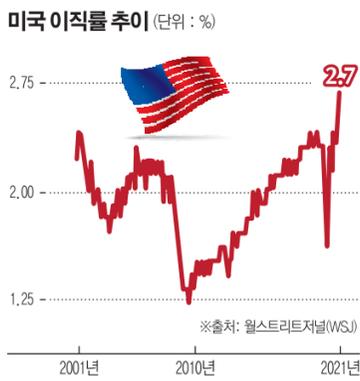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은 사표를 던지는 직원을 붙잡으려고 진땀을 빼고 있다. 신규 채용도 어려운 마당에 기존 인력까지 떠나면서 코로나 이후 경영회복에 또 다른 걸림돌로 떠올랐다는 평가다.

최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자 이직률은 2.7%로 2000년 이후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년 전 이직률은 1.6%에 불과했다. 아이러니하게 코로나 19 사태가 노동자들에게 고용 전망에 자신감을 심어준 셈이다.

사표를 던지는 직원들을 잡으려고 기업들은 승진이나 임금인상 등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구인난으로 비어있는 일자리를 채우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기존 직원들까지 떠나면 경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 노동부는 4월 기업 채용공고가 930만 건으로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3월 812만3000건으로 처음으로 800만 건을 넘어선 데 이어 120만 건가량 더 증가한 것이다. 반면 4월 채용은 610만 명에 그쳤다. 320만 개 일자리를 채우지 못했다는 의미다. 실업률이 6%에 육박했음에도 사상 최대 구인난에 시달린 셈이다. 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수당 탓에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를 꺼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직률 급등을 두고는 기업들의 적극적



인 구인 움직임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노동자들의 인식 변화가 결합한 결과라고 WSJ는 분석했다. 링크트인의 인력 부문 컨설턴트인 스티브 가디건은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면서 "대규모 인력 이동이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람들이 유연근무, 개인 생활, 높은 임금을 중시하고 새로운 분야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미국의 금융회사 푸르덴셜이 최근 노동자 2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분의 1이 조만간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백신 접종과 함께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는 미국의 일자리 시장에선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태다. 연준이 예상을 웃도는 물가 급등에도 긴축 전환에 신중한 이유다. 5월 미국 소비자물가(CPI)는 전년 동기 대비 5% 급등하며 13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커지는 가운데 일자리 문제가 연준의 가장 골치 아픈 과제가 될 것이라고 CNBC는 진단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2%를 넘더라도 완전 고용을 달성할 때까지 물가 상승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장기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려고 공급한 막대한 유동성이 일자리 복귀를 늦추고 잠재적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는 등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다.

김서영 기자 0jung2@



후베이성서 가스폭발로 150명 사상

중국 후베이성 스엔시의 한 식품 시장에서 13일 대규모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오전 6시 30분께 벌어졌으며, 당시 현장에는 장을 보거나 아침 식사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 관계자는 "9137구가 대피했고, 138명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37명이 중상이며, 1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수색구조가 진행 중인 만큼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건물 앞에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우한/신화연합뉴스

머스크 "비트코인 결제 재개" 反美국가 환호

비트코인 9% ↑ 3만9000달러선 복귀... 이란·러시아 등 "채굴 장려" 외화벌이 나서

일본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비트코인에 또 불을 질렀다. 테슬라 차량 결제 수단으로 다시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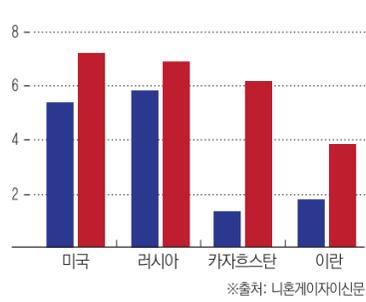
13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에 따르면 머스크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미래 긍정적인 추세와 함께 채굴자들의 합리적인(50%) 청정에너지 사용이 확인되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거래 허용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머스크 CEO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에 있어 배기가스 문제를 악화하는 석탄 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비트코인을 전기차 결제 수단에서 제외한다고 알려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또 이날 그는 "시장을 흔들지 않고 자산을 청산하기 위해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약 10% 수준만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머스크 트윗이 시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해야 한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산운용사 시그니아의 마그다 위어저카 CEO의 지적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공개됐다.

머스크 CEO의 트윗에 비트코인은 다시 치솟았다. 장중 24시간 전 대비 9% 이상 급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 (단위: %)



등하며 3만9000달러 선에 복귀했다. 가상화폐거래소 FTX의 조너선 치즈만 장외거래 책임자는 블룸버그통신에 "비트코인에 대한 머스크의 태도가 누그러졌다"며 "가격이 머지않은 목표치(4만 달러)를 가리키고 있어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더했다"고 설명했다.

머스크 CEO가 쥐락펴락한 비트코인은 이제 개인을 넘어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경기 불황에 허덕이는 국가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일본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에 따

르면 중미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후 가상화폐 채굴을 국가사업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란과 러시아 등도 채굴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전 세계 채굴 점유율은 중국이 80%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중국 점유율은 65%로 6개월 전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그 뒤를 미국(7.2%)과 러시아(6.9%), 카자흐스탄(6.2%), 이란(3.8%) 등이 이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국영 지열 전력회사에 화산 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 시설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저렴한 전력 이외에도 추운 기후가 채굴에 적합, 구소련 시대 대규모 공장이나 건물을 통째로 매입해 전용 장치를 들이는 채굴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란도 정부가 외화 획득을 위해 채굴을 장려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서구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대명 기자 kodae0@

美 "中 원전 방사능 유출 의혹 조사"

佛기업 "원전 폐쇄 피하려 방사능 검출 한도치 높여"

미국이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물질 유출 징후를 조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정부가 지난 일주일간 프랑스 원자로 제조·운영사인 프라마툼의 제보로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 방사능 유출 관련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보도했다. 프라마툼은 최근 미국 에너지부에 서신을 보내 중국 당국이 타이산 원전 폐쇄를 피하고자 원전 외부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올렸으며 이에 해당 원전에 대해 "방사능에 대한 위협이 임박했다"고 전하며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프라마툼은 타이산 원전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3일과 8일 두 차례 미국 에너지부에 서신을 보내 중국 당국이 타이산 원전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초기보다 2배로 높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누출량이 검출 한도의 90%에 도달했는데도 추가로 이 한도치를 높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지난 11일 로라 로젠버그 중국 담당 선임 국장

과 멀러리 스튜어트 무기 통제 선임 국장이 주재하는 차관보 회의를 포함해 지난주 수차례 회의를 여는 등 해당 사안을 비중 있게 다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도 해당 서한을 입수한 후, 관계 부처와 함께 프랑스 정부와 접촉했으며 프라마툼에도 해당 서한과 관련해 여러 질의를 했다. 또 미국 당국자들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중국 정부와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다각적인 검토 끝에 아직 '위기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중국의 국영 파트너사가 문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외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프라마툼에 기술 지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번 문제를 심각하다고 판단하더라도 원전 전면 폐쇄와 관련된 판단과 결정은 중국 정부의 소관이다.

중국은 최근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은 중국 전체 발전량의 약 5%를 차지한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도시바, 日정부와 '담합 스캔들' 경영진 4명 퇴출

지난해 주총서 투자자 압력 의혹, 진화 나섰지만 이달 주총 난항 예고

일본 제조업 명가 도시바가 이사회에서 축이 원하는 멤버를 넣고자 정부와 담합했다는 스캔들이 터졌다. 관계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달 있을 주주총회에서도 적잖은 마찰이 예상된다.

13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도시바는 이날 4시간 동안 긴급 이사회 회의를 연 후 이사회 멤버 2명을 포함해 4명의 고위 경영진을 퇴출했다.

지난주 제삼자 위원회는 도시바의 지난해 여름 정기 주총 인사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회사 측의 요청에 따라 외국 행동주의 투자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당시 시장이던 구루마야 노부야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에 지원을 요청하고 임원진

일부가 행동주의 투자자 대책을 별도로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바는 미국 허버드대 기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당국에 교섭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도시바의 최대주주이자 행동주의 펀드 에피시모가 지난해 주총에서 의결권 행사에 부자연스러운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임시 주총을 요청했고, 올해 3월 열린 주총에서 에피시모의 요청이 가결돼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당시 관방장관 이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긴급 이사회 후 퇴출당한 이사회 멤버는 사외이사인 오타 준지 감사위원회 위원장과 아마우치 다카시 감사위원으로, 이들은 문제가 된 주총 운영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던 인사들이기도 했다. 한마디로 주총과

관련한 도시바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회사가 인정하는 것이다.

경제산업성과 접촉했던 도쿄라 마사야스와 가모 마사하루 등 임원 2명도 이달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147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위원회는 "25일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도시바가 지명한 이사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은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 중 한 곳인 글래스루이스는 도시바 의혹에 대한 회사의 대응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회사가 제안한 이사회 후보자 13명 중 5명의 선임 건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또 다른 자문사인 인스티튜셔널쉐어홀더서비스(ISS)도 5명에 대해 반대를 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씨티은행장 “고용승계 없는 매각 검토한 적 없다”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 일정

4월 15일	미국 씨티그룹, 영상회의서 한국 소비자금융시장 철수 계획 발표
27일	한국씨티은행, 1차 이사회
5월 9일	한국씨티은행, 통매각 우선 추진 발표
25일	현대카드, 씨티카드 인수 추진 기사 보도
28일	현대카드, 씨티카드 인수설 공식 부인
6월 3일	한국씨티은행, 2차 이사회



CEO 메시지 통해 직원 달래기 “전직·희망퇴직·재배치 통해 직원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 노조 “파업 미정...협상 계속”



지에 3가지 대안을 제시한 셈이다. 유 행장은 “일련의 출구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진은 무엇보다 고객 보호 및 은행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해 온 직원 여러분의 이익 보호를 최우선에 둘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했다. 지난해 말 기준 씨티은행의 전체 임직원 3500여 명 중 소매금융 부문 임직원은 2500명(영업점 직원 939명 포함)이다.

유명순(사진) 한국씨티은행장이 은행 매각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유 행장은 지난 10일 CEO 메시지를 통해 “현재까지 고용 승계가 없는 자산매각 방식은 검토된 바 없다”고 전달했다. 씨티그룹이 국내에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이후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유 행장은 “매각에 따른 전직(전직), 자발적 희망퇴직, 행내 재배치를 통해 직원들을 놓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매각에 있어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고용유

또한 유 행장은 직원들의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을 활용하라는 당부도 했다. 그는 “(EAP 프로그램은) 일상 속에서 다양한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 관리나 법률 문제 혹은 재무 관련 이슈를 관련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는 만큼 도움이 필요한 직원이나 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도움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월 소매금융 사

업 부문 철수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소매금융 사업 부문 매각에 나섰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카드가 씨티은행의 신용카드 사업부를 인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시장에 나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카드는 인수 의사를 철회했다.

씨티은행 내부에서는 주력 사업인 카드, 자산관리(WM) 이외에 상대적으로 약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자영업자대출 등의 업무를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인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입장에서는 카드나 WM 사업 부문과 함께 패키지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인수자가 받아들일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현재 씨티은행에 정식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금융사는 4곳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 측은 다음 달까지 전체 매각, 부분 매각, 단계적 폐지 등 3가지 방안 가운데 출구전략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사회 일정은 미정이다.

이 가운데 노조 측은 소비자 금융 철수를 반대하고 있다. 졸속 매각보다 안정적

인 인수 의향자가 나올 때까지 대책을 갖고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정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률 99.14%(투표율 93.20%)로 가결됐다.

노조는 “대의적으론 은행의 영업양도 및 사업 폐지가 인가사형인 만큼 한국노동총, 국회, 금융위원회, 일자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이변 소비자금융 철수가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을 알리고 조급한 매각 진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입장 발표와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의행위 찬반투표가 준법투쟁에 그칠지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정의를 확보했다는 의미만 파업을 곧바로 진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본사와 협상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지희 기자 jhsseo@

ABL생명도 실손보험 판매 중단 고심

다음 달 4세대 상품 도입 앞두고 적자폭 큰 데다 계약 규모 적어

다음달 1일 ‘4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앞두고 ABL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새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ABL생명은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잠정 중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14일 ABL생명 관계자는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실손보험은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되는 상품으로 구조가 바뀐다. 기존 ‘3세대’ 신(新)실

손보험은 더는 팔리지 않는다.

새 상품 판매를 위한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ABL생명은 다음달부터 실손보험 판매를 잠정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ABL생명은 실손보험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품인데다 계약 보유량도 단체계약을 포함해 11만4000건(명)에 그쳐 판매 중단을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BL생명이 판매를 중단한다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는 6곳만 남게 된다.

실손보험이 주력 상품인 손해보험업계와 달리 생명보험업계는 적자투성이 실손보험을 더는 판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보험사가 늘어나는 것이다.

교보생명과 한화생명 등은 현재 4세대 상품 준비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출시 일정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다음달 중에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 예정이나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상품을 판매할 계획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중단 없이 다음달 1일부터 4세대 상품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료수익에서 보험금과 사업비를 뺀 ‘보험손익’은 2조5000억 원 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7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서지연 기자 sjy@



DGB 봉사단, 대구 취약계층에 생필품 박스 DGB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급속히 중단된 지역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패밀리 봉사단 활동을 진행했다. 12일 DGB금융그룹 임직원과 자녀로 구성된 봉사단원과 대구은행 노동조합은 대구 수성구 황금중합사회복지관에 생필품 박스 50세트를 전달했다. 사진제공 DGB금융그룹

수은 사외이사 靑 출신 내정설 노조 “추천 후보는 들러리” 반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상황에서 100대 국정과제였던 노동이사제가 오리무중이다.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인 노조추천이사제조차 번번이 불발되면서다. 현재 사외이사가 공석인 수출입은행 역시 노조추천이사제의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수출입은행 지부(수출입은행 노조)는 최근 수은에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중단을 요구했다. 사외이사 후보군 추리는 과정을 멈추라는 것이다. 신현호 수은 노조위원장(“사외이사 후보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이대로 사외이사 선임 과정이 진행된다면) 노조 측 추천 후보가 들러리로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은 노조가 추진하고 있는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노동자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낙하산 기관장을 견제하고 이사회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수은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복수의 후보를 제정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 중에서 임명하는 구조다. 지난해 1월 방문규 수은 행장은 사측이 추천한 인사 3명과 노조가 추천한 인사 1명 등 총 4명을 사외이사 후

보로 기재부에 제정했지만, 기재부는 사측 인사 2명만 사외이사로 임명했다. 이미 수은의 노조추천이사제는 한 차례 좌절된 바 있다.

수은 노조의 2번째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은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달 31일 나명현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면서 수은 사외이사에 공석이 생기자, 기재부는 수은 측에 사외이사 후보자 명단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시) 수은이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후보자 명단 제정) 지연되고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 제도가 좌절된 건 수은뿐만이 아니다. 기업은행 역시 지난 4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아닌 사측이 추천한 인사만이 사외이사로 임명됐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수은과 달리 행장이 제정하면 금융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측 추천 후보만 사외이사에 선임된 이유에 대해 “후보의 경력과 전문성, 역량 등을 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수 차례 좌절하는 이유에 대해 “공공기관조차도 노조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고 낡은 생각에 사로 잡혀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도입된다면) 이런 불신과 반감을 털어낼 수 있는 사회적 대화와 긍정적인 사례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수빈 기자 bean@

수시채용 대세로, 농협·기업은행만 상반기 공채

금융권 빅테크궤 고용절벽

▶1면서 계속

사회초년생들에게 기회의 장으로 여겨졌던 은행권 공채가 사실상 지위를 감추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5개 은행이 채용한 신규 인력은 13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올 상반기 이전과 같은 형태의 대규모 채용이 예정돼 있지 않다. 2019년까지만 해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상반기 공채를 실시했으나 지난해부터는 디

지탈 관련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다. 특수은행인 농협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만이 상반기 공채를 실시했다.

채용 규모를 밝힌 곳도 디지털에 특화된 경력직 인력을 선발한다. 최근 국민은행은 200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IT, 데이터, 경영관리 전문가, 장애인, 보훈 등 5개 부문으로 한정했다. 이 은행은 ICT 및 IB(투자은행) 전문인력 등에 대해서 상시 채용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도 3월 디지털·ICT 수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올 하반기 진행될 신입행원 공채에도 디지털 역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리터러시(Literacy)’ 평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같은 달 하나은행은 빅데이터 담당자, 디지털 기획 담당자 등을 수시채용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달 디지털/IT 부문에 국한해 상반기 채용을 진행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영업 확산과 인터넷전문은행 확대 등 금융권에 부는 디지털화 바람이 공채 위주의 전통적인 채용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디지털 인재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공채와 연공서열 위주의 은행권 인력구조가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핀테크 업체의 약 40%가 위치한 동남아시아 핀테크 시장의 핵심지역이다. 향후 하나금융은 디지털과 글로벌 부문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다양한 성장 계획이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정태 회장은 “신설 예정인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자산운용사와 아시아 지역 내 기존 그룹 채널과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시너지 극대화도 수익기반 다변화와 국부 증대는 물론, 유사 선진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하나금융, 싱가포르서 자산운용사 예비인가

하나금융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비은행 사업영역을 확대해 수익기반을 다변화한다. 하나금융은 지난 11일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자산운용사 설립 예비인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설립 예비인가 취득은 하나금융그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와 비은행 사업영역 확대 노

력의 일환”이라며 “그룹의 수익기반 강화 및 다변화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는 홍콩을 대신할 새로운 아시아 금융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는 국가다. 싱가포르 자산운용시장을 발판으로 글로벌 확장을 위한 아시아 핵심 시장 확보와 더불어 추후 글로벌 비즈니스 주요 거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한번의 연기, 불안한 개막
 관중도 환호도 없이 조용히.
 하지만 스포츠는 쇼가 아니야
**그 날을 위해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넘어설 것이다.”**

대한민국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국가대표 스포츠클라이밍팀 공식후원사
신한금융그룹



英 사모펀드, 매그나칩 인수 최고가 제시 '새국면'

코누코피아, 주당 35달러 제안
기존보다 인수가 25% 높게 책정

주요 출자자 '中 자본' 대거 포함
반도체 기술 유출 우려는 여전

와이즈로드캐피탈		코누코피아	
28달러	인수 주당 가격	35달러	
1조5528억 원	총 인수가	1조8550억 원	
중국	펀드 분가지	영국	
미국, 유럽 펀드 등	주요 출자자(LP) 분포	중국 자본 일부 포함	

중국계 사모펀드(PEF)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매그나칩반도체의 매각 절차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한미 양국의 규제당국이 본격적으로 매각에 따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유출 가능성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가운데, 새로운 조건을 내건 또 다른 인수 제안자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선 매그나칩은 인수 제안을 상세히 살펴보고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현지 시간) 예정돼 있던 매각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도 최소 한두 달가량 밀릴 전망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매그나칩반도체는 최근 투자자와 시장 관계자

들에게 코누코피아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Cornucopia Investment Partners·이하 코누코피아)로부터 주당 35달러 공개매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인수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누코피아는 영국 런던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 중인 사모펀드다.

주당 35달러는 기존 인수 주체였던 와이즈로드캐피탈(주당 28달러)보다 약 25% 높은 가격이다. 총 매수 금액은 약 14억 달러(1조5828억 원)에서 16억6000만 달러(1조8550억 원)까지 오른다.

당장 다음날 매각 관련 특별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었던 매그나칩은 주중 일시를 미루기로 했다.

새 일정은 특별 주총이 열리기로 했던 일시에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다수 전례에 비춰보면, 주총 날짜는 한두 달가량 밀릴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이와 관련해 "법률·금융 자문위원과 새로운 인수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수 금액 외에도 추가 투자 여부, 시설이나 인력 유지 조항

등을 두루 살펴서 이전 제안보다 유리한 조건인지 확인하는 식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존 인수자인 와이즈로드가 경영진과 임직원은 물론, 생산시설·IP까지 모두 한국에 유지할 것을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이 검토 기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뜻이다.

업계에선 새로운 인수 제안이 여러 암초를 만난 매그나칩 매각에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주목하고 있다. 매그나칩은 3월 중국계 사모펀드 매각을 발표했다. 이어지고 있는 기술 유출 우려에 매각 절차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투자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매그나칩 매각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매그나칩의 주력 제품의 기반이 되는 OLED 구동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영역 안에 추가했다. 어느 한쪽이라도 제동을 건다면 매각이 불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새로운 제안을 한 영국계 사모펀드로 인수자가 바뀐다고 해도, 기술 유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누코피아는 영국계 사모펀드긴 하지만, 돈을 대는 주요 출자자(LP)에 양고파이낸셜 홀딩스(Yango financial holdings), 롬바디아 차이나 펀드(Lombarda China Fund) 등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자본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이다.

기존 인수주체인 와이즈로드캐피탈의 경우 본사가 중국 베이징에 있었지만, 돈을 대는 출자자는 대부분 유럽이나 미국 펀드였다.

회사는 매각에 따른 기술유출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도 고수하고 있다. 김영준 매그나칩 대표이사는 이달 초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사모펀드의 인수 목적은 '엑시트'(기업 가치를 키운 뒤 재매각이나 상장해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을 빼돌릴 이유가 없다"라며 "계속되는 기술 유출 우려가 답답하다"라고 강조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

작년 수주 실적 넘은 중형 조선사, 신기술 개발 박차

올해만 총 33척 건조계약 따내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차별화



우리나라 중형 조선사들이 올해 벌써 30척 이상의 선박을 수주했다. 올해 절반이 아직 지나지 않았음에도 작년 전체 수주 실적을 뛰어넘었다.

오랫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위기에 머물렀던 중형 조선사들은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한다.

14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에 따르면 '조선 빅3'(현대중공업그룹·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를 제외한 우리나라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선박은 지난달 누적 기준 33척이다.

지난해 전체 수주 건수(18척)를 일찌감치 뛰어넘었다. 가장 많은 수주 실적을 달성한 회사는 대진조선(21척·사진)이다.

그 뒤를 이어 대한조선이 9척의 선박을 수주했다. STX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각각 선박 2척, 1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맺었다.

중형 조선사들이 선전한 이유는 올해 들어 글로벌 선박 발주 시장이 반등해서다.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업체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5월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1907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로 전년 동기 대비 179% 상승했다.

중형 조선사들은 차별화 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대진조선은 스테인리스 탱커선 등 중소

형 선박 틈새시장에 진출한다. 최근에는 적재 컨테이너 수를 극대화하는 구조변경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대한조선은 친환경 선박 개발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4월 목포해양대 등과 암모니아 추진 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암모니아 선박은 탄소배출이 거의 없는 선박이다. 스마트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글로벌 선급 DNV로부터 스마트선박 기술 관련 기본 인증을 획득했다. STX조선해양은 조선 탄소중립위원회 참여를 계기로 친환경 선박 확대에 나선다. 한진중공업은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선종 다양화를 추진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목할만한 수주 실적에도 대형 조선사와 중형 조선사 간 격차는 상당하다"라며 "중형 조선사가 완벽히 부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이재용 사면' 재차 건의한 손경식 경총 회장 "국가 위해 봉사할 기회 줘야"

"韓, 반도체 경쟁력 악화 우려
이 부회장 조속한 복귀 필요"



손경식(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재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경총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노사관계 현안 관련 정책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2월 이후 약 4개월만의 회장단 회의다.

손 회장을 비롯, 이동근 경총 부회장, 박상철 두산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류경명(주)한진 대표이사,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등 20여 명의 경총 회원사 회장단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가 하루빨리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앞서 손 회장은 4월 경제5단체장 명의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한 이후 여러 공식 석상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언급해왔다. 이달 초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

왔던 우위가 깨질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라고 했다.

손 회장은 이어 경제·노사관계 현안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7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과 관련해 그는 "해고자, 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교섭에서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급여 지원 등 과도한 요구가 빈번히 제기되고 파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라며 "사용자·대항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제 수준에 맞게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선 '과잉입법'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청기업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법적 근거도 분명치 않고, 기존 대법원의 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의 판결과도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노우리 기자 we1228@

한화에어로 '드론택시' 핵심 구동장치 개발 착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가 국내 최초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핵심 구동장치인 전기식 작동기 개발에 나선다. 미래형 개인 비행체는 드론 택시 등 신개념 항공 교통수단을 말한다.

한화에어로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차세대 운송수단용 고신뢰 전기식 작동기(EAM) 개발'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4년간 184억 원 규모다. 개발은 2024년 완료된다. 한화에어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항공대, 국내 중소기업들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화에어로는 국내 최초로 PAV용 고신뢰도 전기식 작동기 개발에 성공하면 글로벌 시장 진출과 민간 항공기용 시장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친환경·고효율이라는 추세에 따라 기존 항공기에 사용되던 유압식 구동장치 대신 전기식 구동장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글로벌 전기식 작동기 시장은 2025년 약 3조 원 규모에서 2035년에는 약 11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대우조선해양, 1.1兆 규모 해양설비 수주

대우조선해양이 2년 만에 해양설비 수주에 성공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업체인 사이렘과 함께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를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총 계약 규모는 약 2조6000억 원이다. 이중 대우조선해양의 계약금액은 약 1조948억 원이다.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약 2000억 원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 선체를 수주한 바 있다. 조 단위의 대형 프

로젝트는 2014년 약 3조 원 규모의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이후 7년 만이다. 이번에 수주한 FPSO는 하루 18만 배럴의 원유와 720만㎥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또 200만 배럴의 원유를 저장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선체와 상부 구조물 일부를 건조할 예정이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총 27척, 약 37억2000만 달러 상당의 선박을 수주했다. 이는 올해 목표 수주액(77억 달러)의 약 48.3%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한화 본사 사옥, 세계가 인정한 '친환경 빌딩'

CTBUH 어워드 대상 수상

한화그룹 본사 사옥이 친환경 빌딩으로 인정됐다. 한화그룹 사옥은 45개월간 보수 작업을 거쳐 2019년 11월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친환경 빌딩으로 재탄생했다.

한화그룹은 14일 올해 세계초고층도시건축학회(CTBUH)가 주최한 '2021 Tall

+ Urban Innovation' 콘퍼런스에서 리노베이션 부문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29개 부문 대상 중 리노베이션 부문에서 국내 건축물로는 유일하게 대상에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태양광 패널을 접목한 친환경 빌딩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대영 기자 kdy@

GS칼텍스, 전기차 윤활유 브랜드 'Kixx EV'

GS칼텍스가 전기차 전용 윤활유 브랜드를 출시했다. 전기차용 윤활유는 감속기나 모터 감속기 통합형 트랜스미션 윤활유와 배터리 열을 냉각하는 냉각계 윤활유 등이 있다. GS칼텍스는 14일 전기차용 윤활유 브랜드 '키스 이브이(Kixx EV)'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용 윤활유는 자동차 부품 마모를 방지해 부품의 효율적 작동과 수명 연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GS칼텍스는 전기차용 트랜스미션 윤활

유 개발을 완료했다. 전기차용 냉각계 윤활유는 개발 단계다. GS칼텍스는 미국 연구기관 SwRI에서 주관하는 전기차용 윤활유 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다양한 전기차용 윤활유 개발을 진행 중이다. 현재 트랜스미션 윤활유를 국내 전기차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키스 이브이 출시를 기념해 키스 브랜드 굿즈 증정 이벤트를 이달부터 21일까지 진행한다. 김대영 기자 kdy@

SK, 유럽 최대 '유전자·세포 치료제' 생산기지 구축

佛이포스케시 2공장 증설 착수
5800만 유로 투입 2023년 완공
임상부터 대량 생산 역량 갖춰
SK팜테코와 실적 시너지 기대



SK㈜가 인수한 프랑스 유전자·세포 치료제 CMO 이포스케시의 생산시설 모습. 사진제공 SK㈜

SK㈜가 올 3월 인수한 프랑스 유전자·세포 치료제 위탁생산(CMO) 업체 이포스케시가 공장 증설에 나선다. 유럽 최대 수준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글로벌 생산기지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SK㈜는 14일 이포스케시가 약 5800만 유로(한화 약 800억 원)를 투자해 유전자·세포 치료제 제2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2공장 규모는 5000㎡ 규모다. 완공 시기는 2023년이다. 제1공장이 있는 프랑스 바이오 클러스터 '제노폴'에 증설된다.

제2공장은 유전자 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 바이오리액터와 정제 시스템, 원료 의약품 생산 시설, 품질관리 연구소 등의 시설을 갖춘 예정이다. 신규 생산시설은 바이오 의약품 중 치사율이 높은 희귀 질환 유전자·세포 치료제 생산 공급지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SK㈜는 제2공장이 완공되면 유럽 최대 수준인 1만 ㎡ 규모의 유전자·세포 치료제 생산기지를 갖게 된다.

SK㈜ 관계자는 "생산 능력과 실적이 잘 공개되지 않는 분야"라면서도 "업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럽 내에서는 최대 규모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전자·세포 치료제는 유전자 결함으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을 1~2회 유전자 주입으로 완치하는 맞춤형 치료제다. 고도의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필요해 소수 글로벌

CMO 선두 기업 외에는 진출이 쉽지 않은 분야다. 최근 유전자·세포 치료제는 고가에도 치료 효과가 커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추세다.

이포스케시는 유전자·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의 핵심이자 체내로 치료 DNA를 투여하기 위한 유전자 전달체 생산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앞서 SK㈜가 이포스케시를 인수했다는 소식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SK㈜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첨단 시설을 갖추면 본격적인 상업화를 거쳐 매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CMO 통합법인인 SK팜테코가 보유한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대량 생산·품질 관리 역량을 이포스케시와 공유해 상승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전자 전달체를 대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다는 점도 이포스케시를 강화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포스케시는 제2공장도 GMP 기준을 적용해 설계했다. 유럽의약품청(EMA)과 미국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거쳐 2023년 본격 가동된다.

SK㈜ 관계자는 "최대 제약시장인 미국

과 유럽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포스케시 인수 자체가 대단히 큰 이슈였다"며 "인수 이후에 본격적인 증설을 통해 업계 내의 지위가 강화된 차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동훈 SK㈜ 바이오 투자센터장은 "이포스케시는 초기 단계 임상시험부터 상업화 후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신약 개발의 전 단계에서 최고 수준의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된다"며 "해의 시장 확장 등 SK팜테코와의 다양한 상승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영 기자 kdy@

LS전선, ESG 경영 비전 선포

전 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
전담부서 신설·안전관리 강화



LS전선은 14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비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No.1 친환경 케이블 솔루션'을 선포하고,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LS전선은 ESG위원회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과 안전 관리 등을 강화한다. 또, 2050년까지 전 사업장에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을 추진한다.

LS전선은 핵심과제로 △녹색 인프라 혁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안전 최우선 사업장 구현 △공정하고 투명

한 ESG 경영 실천 등을 선정했다. 구자엽(사진) LS전선 회장은 ESG 경영 선포 기념사에서 "산업 전반에 에너지와 정보를 전달하는 '혈관'을 책임지는 기업으로서, 건강한 지구를 되찾는 노력에 동참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ESG 경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스마트폰 덮친 '반도체 대란' 삼성, 신제품 생산 늦춰지나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 계약재
겔S21 FE 등 출시 지연 가능성

올해 초 자동차 업계에서 본격화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스마트폰 업계로 번지고 있다.

애플, 샤오미 등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반도체 공급 문제로 제품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글로벌 1위 삼성전자 역시 하반기 신제품 출시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일 부품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 선보일 예정이던 '갤럭시 S21 FE(팬에디션)' 출시가 한두 달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 비중이 높은 베트남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 되는 등의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반도체 부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갤럭시S21 FE에 출시 일정을 언급한 적은 없다. 다만 업계에선 7월 말 혹은 8월 초 언팩을 통해 공개되고 출시는 8월 말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몇 년간 출시 일정 정보 대부분이 맞았다는 것을 봤을 때,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란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제품 출시 일정과 제

품 사양 등 정보가 최근에는 대부분 사전 유출되는 분위기"라며 "실제와도 맞아 떨어졌다"고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S21 FE 생산 차질에 대해 "출시되지 않은 제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출시 지연 현상은 다른 제품에서도 감지된다. 최근 '갤럭시A52'가 국내보다 일본에서 먼저 출시된 것도 반도체 부족 탓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 밖에 지난달 말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탭S7 FE' 생산 역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6월 중순 출시가 목표였는데 한 달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스마트폰 업계의 반도체 부족 현상은 이미 예고된 현상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 대표이사(사장)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IT 쪽 반도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며 "협력사들을 만나고 매일 아침 부품 공급 문제와 관련해 임직원이 달려들고 있지만 2분기가 조금 문제"라고 말했다.

애플 역시 1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반도체 부족 문제가 2분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적 저하의 우려 요인으로 제시했다. 샤오미 등 일부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핵심 반도체를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일부 품종을 단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록 기자 syr@

폭염, 폭우, 한파, 먼지
아이들에게 기후변화는 고통입니다
기후변화대응이 힘든 에너지빈곤가정 127만가구

1588-1940
www.childfund.or.kr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기후환경교육과 아동 복지사업, 저소득가정 주거 및 에너지(보일러)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지원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상장 앞둔 크래프톤, 콘텐츠 강화로 몸값 불린다



크래프톤이 상장을 앞두고 기업을 인수하고 게임 내 수익화에 집중하면서 몸값 불리기에 나섰다. 대표 게임인 '플레이어 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수익에 최적화된 게임 내 콘텐츠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14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크래프톤은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증권이며, 공동주관사는 NH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JP모건이다. 상장이 순조롭게 이어지면 연내 상장을 완료할 전망이다.

크래프톤은 시장에서 배틀그라운드 개발사로 잘 알려진 곳이다. 2017년 출시된 배틀그라운드는 '가장 빠

출시 4년 '배그' 7000만장 판매 모바일 전용 버전도 연내 출시 사전 예약자 1000만명 넘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 수익 기대

르게 1억 달러 수익을 올린 스팀 얼리엑세스 게임' 등 기네스북 세계 기록 7개 부문에 이름을 올리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인지도가 높다. 출시 4주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계 시장에서 총 7000만 장 이상(PC·콘솔 포함) 판매될 정도로 글로벌 대표 인기 IP로 자리매김했다.

크래프톤은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는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통해 수익 다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배틀그라운드를 기반으로 개발된 이 게임은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에서 알파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응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게임 내 수익화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크래프톤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배틀그라운드 내 총기 스킨 시스템을 선보였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12.1 패치를 통해 무기 스킨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무기는 특정 재료나 재화를 소모해 무기 스킨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진화형 무기다. 각 레벨을 달성할 때마다 총기 스킨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수집욕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 내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손상은 고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무기 스킨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이용자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린다. 업그레이드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베릴 M762' 총기에 한정돼 있고, 이마저도 0.9%의 확률로 얻을 수 있다. 총기를 얻은 이후에도 재료를 얻어야 하는 만큼 낮은 확률을 높고 재료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도 새로운 총기 스킨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 반응이다. 인기 총기인 만큼 대다수 이용자가 특별한 스킨을 얻기 위한 최적화 콘텐츠라는 평가다. 특히 크래프톤이 상장을 앞둔 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존 배틀그라운드 내에서의 수익 모델은 '서바이버 패스', '캐릭터 외형 스킨' 등에 한정돼 있었지만, 무기 스킨 시스템을 통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크래프톤의 지난해 매출액은 1조 6704억 원, 영업이익 7739억 원이다. 현재 총기 1정에 한정된 스킨 시스템 역시 앞으로 다양한 총기까지 확대되면 그만큼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미를 줄 콘텐츠를 선보이고, 동시에 배틀그라운드의 사업 모델을 체계화하기 위해 무기 스킨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카카오, 3년 만에 커머스 재결합 '쇼핑 공룡' 네이버·쿠팡 잡는다

카카오 내 별도조직 운영 이커머스 경쟁 격화 전망



이 접할 수 있다. 이런 활발한 소통으로 정식 출시 전 소비자의 반응을 먼저 읽고 제품 개선에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덕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자회사 카카오커머스와 다시 합병한다. 카카오커머스가 분사한 지 3년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커머스는 다음 주중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와의 합병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합병 이후에는 흥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가 수장직을 유지하며 카카오 내 별도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카카오커머스는 2018년 12월 카카오 내 쇼핑부문에서 독립 법인으로 분사했다.

카카오커머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카카오톡 스토어, 카카오택시,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 이커머스와 관련된 서비스 운영을 도맡아 했다.

카카오커머스를 이끈 흥은택(사진) 대표는 2012년 카카오 콘텐츠 서비스 부사장으로 카카오에 합류했다. 이후 2016년 2월 대량생산 대량 소비로 이뤄지는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주문생산 체제로 바꾸고 중소상공인의 재고 부담을 줄임으로써 상생하는 '카카오메이커스'를 설립했다. 카카오메이커스가 2017년 4월 자회사로 분사한 뒤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카카오 고유의 커머스 모델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성과도 눈부시다. 이날 기준 카카오메이커스의 누적 거래액은 무려 4000억 원을 넘는다. 지난해 11월 3000억 원을 돌파한 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카카오메이커스에서 신제품을 선공개하는 대형 브랜드들이 늘고 있다. 수급과 재고 관리가 안정적인 대형 브랜드도 주문 제작 방식을 통해 제품 실패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메이커스의 경우 MD가 고객과 직접 소통하고 사용 후기를 적극적으로 제품 개발에 반영하고 있어, 고객들의 진솔하고 생생한 후기를 많

에 대형 브랜드에서도 카카오메이커스를 찾고 있다. 실제 올해 진행된 신규 주문 중 선공개 제품의 비율은 50%에 달한다.

지난 5월 선공개를 통해 첫 주문을 받은 '오투기 고기리 들기름막국수'는 주문 시작 3시간 만에 준비된 1만 세트 주문이 마감됐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모니터 M5 화이트 에디션' 선공개도 가격대가 높은 제품임에도 일주일 동안 1200개의 주문이 이뤄졌다.

또한, 제품 실패에 더 큰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에는 제품 출시와 판매 채널 확장의 발판이 되기도 한다. 대우전자 전 임원이 세운 일코전자는 그동안 대형 사이드만 있던 건조기를 1인 가구도 쓸 수 있는 작은 크기로 만들어 카카오메이커스에 선보였다. 처음 시도되는 실험이었지만 여러 차례 양코르가 진행될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고, 이를 통해 본격 대량 생산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해외 리브콜까지 받을 수 있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와 카카오커머스 합병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네이버와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격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카카오커머스는 지그재그 합병을 통해 7월 출범하는 만큼 쇼핑 부문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와 카카오커머스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백신 접종·여름휴가'에 여행 스타트업 활기

플랫폼 강점 살려 고객 대거 유치 내달 해외 여행 일부 재개 호재 프로모션 풍성... 대규모 채용도

코로나 백신 접종이 늘면서 여행 스타트업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IT와 플랫폼을 강점으로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4일 여행 플랫폼 마이리얼트립에 따르면 올해 6월 첫 주 예약 건수는 총 9300여 건으로 2012년 설립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순수 국내 여행 예약 건수로 거래액은 7억 원에 달한다. 최근에 열린 호캉스 프로모션 거래액도 3억 2000만 원을 달성했다. 마이리얼트립은 항공, 숙박, 투어, 액티비티 등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슈퍼 앱'을 서비스 중이다.

코로나 19로 억눌렸던 여행심리가 백신 호재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내달부터 싱가포르, 괌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여행 제재가 풀리면서 여행 산업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았다.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규모 인재 채용을 하거나 패키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마이리얼트립은 오는 8월까지 창사 이래 최초 대규모 채용을 진행한다. 모바일 개발자, 데이터 엔지니어, UX, BI 디자이너, 항공 운영 매니저 등 전 직군 50명을 채용한다. 입사자들은 퍼스트 클래스 항공권이나 1000만 원 상당 여행 지원금을 받는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카운터가 해외 출국자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측은 "적극적인 인재 채용으로 코로나 19 종식 이후의 여행 시장을 대비하고 글로벌 여행 애플리케이션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와디즈는 추석 시즌을 겨냥해 전세기를 빌려 폼과 대만 여행할 수 있는 상품을 펀딩하고 있다. 지난 4월 첫 펀딩을 연 이후 큰 인기를 끌면서 현재 앵글 펀딩을 진행 중이다. 해당 펀딩은 노선마다 펀딩 목표 인원 100명이 참여하면 전세기를 타고 여행하는 방식이다. 인터파크투어의 전세기 항공권과 각 지역 소규모 여행사의 현지 여행상품으로 구성됐다. 다만, 푸구옥, 보홀, 사이판, 괌 등 노선의 전세기 항공권이다.

렌터카 가격 비교 애플리케이션 카모아는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 경상북도와 함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경북지역을 찾는 여행객에게 숙박시설, 액티비티, 렌터카 등 여행에 필요한 모든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이벤트다.

경상북도에는 경주와 안동 등 세계문화유산과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국내 여행지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1분기 경북지역 카모아 매출은 지난해 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억눌려 있던 회복 심리가 늘고 있는데, 특히 백신 접종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SKT, 비브스튜디오스에 지분 투자 '메타버스 육성'

점프AR·3D 영상 기술 결합

SK텔레콤(SKTEL)이 버추얼 프로덕션(Virtual Production) 전문 스튜디오 비브스튜디오스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5G 시대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메타버스(Metaverse)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SKTEL은 이달 11일 비브스튜디오스와 사업 협력 및 지분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투자 금액 및 교환 지분 규모는 비공개다.

비브스튜디오스는 3D CGI(Computer

-Generated Image) 및 VFX(Visual Effects) 기반의 3D 영상 제작 전문 스튜디오다. 세계 유수 영화계에서 수상한 VR 영화 '볼트' 시리즈를 비롯해 다수의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하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VR 휴먼 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SKTEL은 이번 투자 협력으로 자사가 보유한 점프 버추얼미팅(Virtual-Meetup) 점프AR, 점프스튜디오 등과 비브스튜디오스의 3D 영상 제작 기술을 결합해 본격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나선 계획이다.

먼저 SKTEL 메타버스 핵심 플랫폼인 버추얼미팅 내 아바타와 가상공간이 비브스튜디오스의 리얼타임(Real Time) 3D 제작 기술 및 VFX 기술을 통해 실감나는 메타버스 경험을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볼류메트릭 콘텐츠와 비브스튜디오스의 버추얼 프로덕션을 결합해 현실과 같은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점프 버추얼미팅 및 점프AR 등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브스튜디오스도 SKTEL과의 협력해 글로벌 진출 등 시장 확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정지선 회장 “현대백 100년 역사 함께 만들자”

15일 창립 50주년을 맞는 현대백화점그룹이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기존 주력 사업인 유통과 패션 등에 인수합병(M&A)을 더해 2030년까지 매출 40조 원을 달성하는 동시에 ESG 경영 강화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정지선(사진)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14일 창립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우리 그룹의 50년 역사를 한 줄로 압축한다면 과감하고 열정적인 도전의 연속”이라며 “우리는 이제 반세기 동안 축적된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100년 그 이상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추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공헌과 상생협력 활동을 진정성 있게 유지하면서 친환경 가치를 창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외부에 잘 드러내지 않고 내실을 추구하면서도 범현대가 특유의 ‘뚝심 경영’을 이어가 ‘은둔의 경영자’라는 별명이 붙은 정지선 회장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불황에도 올해 서울 시내 최대 규모 백화점인 여의도 ‘더현대서울’을 오픈하는 역발상 전략이 빛을 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비전을 담은 ‘비전 2020’을 선포하면서 투자와M&A를 본격화했다. 2012년 여성복 1위 기업 한섬과 가구업체 리바트(현 현대리바트)를 인수했고 2017년 한섬이 ‘SK네트웍스 패션부문’을 추가로 인수해 국내 대표 패션전문기업 반열에 올랐다. 리빙·인테리어 부문은 2018년 종합 전자재기업 ‘한화L&C(현 현대L&C)’를 인수해 사업 입지를 강화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초 ‘100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2030년 매출 40조

창립 50주년 포부 밝혀

M&A 가속 2030년 매출 40조
사회공헌·상생 ESG 경영 박차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만들 것



원 시대를 열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담은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주력 사업인 유통, 패션, 리빙·인테리어 등 3대 핵심사업과 함께 뷰티, 헬스케어, 바이오 등 새 먹거리 사업에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통해 40조 매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유통 부문은 백화점(아울렛)·홈쇼핑·면세점을 주축으로 상품 차별성과 온·오프라인 경쟁력 제고 등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패션 부문은 한섬 고유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운 새로운 패션 브랜드 론칭과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확대에 주력한다. 동시에 고기능성 프리미엄 화장품 등 뷰티 분야와 디자인 소품 등을 취급하는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진출도 계획하고 있다.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는 건강과 친환경을 콘셉트로 단체급식·식재·외식 등 기존 사업부문별 경쟁

력을 높이고, 케어푸드(그리팅) 상품 다양화에 나선다. 리빙·인테리어 부문의 경우, 기존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관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룹 내 제조 및 플랫폼 사업 영역과 시너지가 예상되는 뷰티·헬스케어·바이오·친환경·고령친화 등의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나설 방침이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투자를 통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을 강화해 ‘미래 세대에 신뢰와 희망을 주는 기업’이 되겠다”는 포부도 함께 내놨다. 이와 관련 현대백화점은 최근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이사회 산하에 ‘ESG 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더불어 사내에 대표이사 직속의 ESG 전담 조직인 ESG 추진 협의체도 신설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싱가포르의 최대 유통 체인점인 페어프라이스(Fair Price)에서 현지 소비자들이 ‘참이슬’과 ‘자몽이슬’ 등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이트진로

소주에 취한 동남아시아

하이트진로 홍콩·인도네시아 구매자 70% 이상은 현지인

소주가 해외 시장에서 K주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과거 수출용 소주는 대부분 현지 교민들을 겨냥했는데 비해 최근에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저변 확대에 속속 성공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민과 현지인 구매 비중이 역전된 사례까지 나올 정도다. 특히 K팝과 K푸드에 우호적인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소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지인 구매 비중이 높은 국가 상위 10개국 중 6개가 동남아시아 국가일 정도다.

14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해외 현지인 음용 비율이 2016년 30.6%에서 2020년 68.8%로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트진로는 2016년 소주세계화를 선포하고 현지에서 시음행사는 물론 차량 랩핑 광고, 소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갖춘 주점까지 운영하는 등 소주 알리기에 앞장서 왔다. 지난해 소주세계화 4년차를 맞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체 판매량의 70% 이상이 현지인일 정도로 소주를 즐기는 인구가 늘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MZ세대를 중심으로 소주가 인기를 누리면서 시장에서 룹런할 수 있는 기반도 다졌다.

최근 4년간 현지인의 소주 음용 비율이 가장 폭으로 증가한 국가 1위는 홍콩, 2위는 인도네시아다. 이들 국가는 4년간 60%포인트(P) 이상 현지인 음용비율이

현지인 소주 음용 비율증가 상위 5개국 (단위: %P, 2020년 기준) ※ 출처: 하이트진로



※ 2016년 대비 증가폭(말호는 현지화 비율)

늘어나며 이미 교민사회의 구매 비중을 크게 넘어섰다.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랭크됐다. 미국은 22.9%P 상승한 8위, 중국은 22.3%P 상승한 9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하이트진로는 소주와 과일리큐르를 앞세워 국가별로 주요 주종을 다르게 배치하는 등 현지인들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한다. 하이트진로는 2024년까지 전략 국가 기준 현지인 음용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하이트진로 해외사업본부 황정호 총괄 상무는 “전세계에 소주 카테고리 생성, 우리나라 대표 주류인 소주를 세계적인 증류주로 알리고 현지인들에게 품질력과 가치를 인정받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시그니엘 커피를 집에서” 특급 호텔도 구독 서비스

시그니엘, 디퓨저·원두 배송
조선포도 월간 커피 구독
비대면 소비 확산에 적극 도입

특급 호텔이 컵대를 낮췄다.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구독 경제 시장이 커지자 호텔 ‘밖’ 서비스까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급 이미지’를 바탕으로 객실 위주 영업을 강조해왔던 호텔업계 영업 기조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조선포도앤리조트에 이어 롯데호텔까지 이른바 ‘특급’들이 줄지어 구독 서비스에 나서며 분위기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감염병 여파로 집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체면치레보다는 수익 확보가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호텔은 시그니엘 서울·롯데호텔 서울·롯데호텔 월드 등 서울 시내 특급호텔 3곳에서 정기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롯데호텔의 정기 구독 서비스 출시는 처음이다.

시그니엘 서울은 시그니엘 브랜드 호텔에서만 만나볼 수 있던 자체상표(PB) 상품을 정기 구독 서비스로 제공한다. 커피 마스터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과한 원두만을 블렌딩해 아로마가 살아있는 시그니엘 79와 시그니엘 123 블렌드 커피를 묶어 월 1회씩 구독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기 배송한다. 구독료는 연간 86만 4000원이다. 일반 구매 대비 20% 할인된 가격이다.

시그니엘만의 시그니처 향인 ‘어 워크 인 더 클라우드(A Walk in the



시그니엘의 디퓨저.



조선포도앤리조트의 월간 커피 구독 서비스.

Cloud)’를 담은 디퓨저도 받아볼 수 있다. 디퓨저 교체 주기를 고려해 1년간 격월로 1병이 제공된다. 일반 구매 대비 10% 할인된 연간 47만 5200원에 구독 가능하다.

롯데호텔 서울은 국가대표 소믈리에 경력의 이용문 소믈리에가 엄선한 와인 셀렉션을 즐길 수 있는 와인 구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독자와 상담을 거쳐 구독자 기호에 맞춘 와인을 선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매월 1종의 와인이 제공되는 화이트 등급과 매월 2종의 와인이 제공되는 레드와 퍼플 등급의 세 가지 와인 구독 서비스 중 택일할 수 있다. 등급별 연간 구독료는 화이트 60만 원, 레드 144만 원, 퍼플 360만 원이다.

롯데호텔 월드는 베이커리 델리카한스에서 케이크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프리미엄 망고 케이크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이 매월 1매씩 제공된다. 케이크는 수령일 최소 1일전 델리카한스 유선

예약 후 방문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구독료는 28만 원이다. 7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업계에선 롯데호텔이 L7, 롯데시티 호텔 등 호텔 체인으로 구독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롯데호텔은 “지금으론 특급호텔 3곳에서만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조선포도앤리조트는 올 초 일찌감치 월간 커피 구독 서비스를 내놨다. 조선포도앤리조트는 웨스틴 조선 부산, 그랜드 조선 부산 조선포도에서 월간 커피 구독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나의 호텔을 지정해 해당 호텔에서 20잔의 커피를 데이크 아웃할 수 있다.

월간 커피 구독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6만5000원이다. 아메리카노나 라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결제 당일 무료 커피 1잔을 추가 제공한다.

이 상품은 조선포도 무료 멤버십 클럽조건 리워드 가입 시 이용 할 수 있다. 클럽조건 리워드는 레스토랑 포인트 적립, 웰컴드링크, 객실 1만 원 할인권 등이 포함된 무료 멤버십으로 조선포도앤리조트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글래드 호텔앤리조트는 글래드 호텔의 웨딩 플라워를 전담하는 ‘더 세인트(the Saint)’와 함께 집에서도 글래드 호텔만의 감각적인 플라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글래드 플라워 바이 더 세인트’를 4월 선보였다. 계절을 반영한 시즌성 꽃을 큐레이팅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독 고객은 월 2회, 격주 수요일에 꽃을 받아볼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농심 육개장·김치사발면 50억개 팔렸다

농심은 육개장사발면과 김치사발면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판매량 50억 개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심은 이들 제품의 매출이 지난해 총 1240억 원을 기록, 2010년 660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다고 했다. 같은 기간 전체 라면 시장 규모가 2조 원 안팎으로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성장세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특히 육개장

사발면은 2011년 이후 줄곧 용기면 시장 1위를 지키고 있다(닐슨 코리아 기준).

이 같은 인기는 최근 아웃도어 인구 증가와 연관성이 높다고 농심 측은 분석했다. 캠핑족 등 야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면서 농심 사발면이 인기 제품으로 등극하며 자연스레 판매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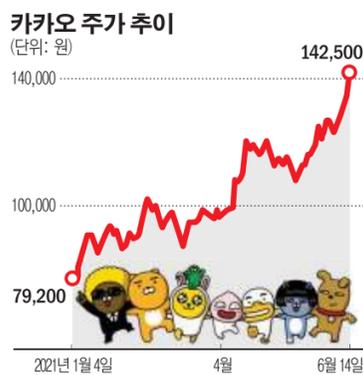
농심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트렌드분석센터와 함께 사진으로 일상 소비 패턴을 분석

하는 ‘스토코그래피(Stockography)’ 기법을 활용해 2019-2020년 2년간 SNS에 올라온 주요 라면 브랜드의 이미지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야외활동을 배경으로 한 사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라면은 ‘농심 사발면’이었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 사발면은 용기면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하는 특별한 제품”이라며 “소비자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jji@

네이버 63.5조 vs 카카오 63.2조 '시총 3위' 경쟁

카카오, 올초 13조 격차 좁혀
액면분할에 페이·뱅크 상장 호재
14일 장중 순위 앞치락뒤치락
네이버, 인건비 등 비용 증가 발목



63.5조 원 vs 63.2조 원.
카카오가 네이버 턱밑까지 쫓아왔다. 올초 13조원까지 차이가 벌어졌던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3100억 원 수준으로 좁혀졌다. 카카오뱅크·페이 등 주력 자회사가 빠르게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데다 기업공개(IPO)가 임박하면서 카카오 시총이 네이버를 따라잡는 건 시간문제라는 주장도 나온다. 라인과 Z홀딩스의 합병, 위버스·V 라이브 서비스 통합, 왓패드 인수 등 네이버가 씨를 뿌려놓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이 자리잡을 때 네이버의 본격적인 키맛주기

가 시작될 거라는 분석이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날 시가총액 4위(63조2599억 원)에 이름을 올렸다. 시총 3위인 네이버 63조5699억 원과는 불과 3100억 원 차이다.
이날 장 중 카카오는 네이버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카카오는 네이버를 넘 볼 처지가 아니었다. 1월 4일 개장일 기준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48조1291억 원, 카카오는 35조208억 원으로 13조 원 이상 차이가 났었다. 그러다 최근 분위기가 반전됐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 조단위 대어급 자회사가 상장에 나서면서 카카오

가 빠른 속도로 네이버를 맹추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지난 4월 15일에 단행한 액면분할 이후 새로운 국민주로 떠오르며 시가총액이 10조 원 가까이 불어난 것도 순위 상승에 힘을 보탤었다. 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획득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승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커머스, 광고, 콘텐츠 등 전 부문에 걸친 펀더멘털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페이 및 모빌리티 등 신규 비즈니스 터어라운드 예상된다는 점에서 카카오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심리는 지속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뱅크 및 두나무 등의 지분법 손익을 더하면 개선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적개선의 강도가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고,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자회사들의 IPO에 따른 연결가치 재평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가는

견조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네이버는 추가 성장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정호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020년 하반기부터 네이버의 영업비용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매출에 연동해서 발생하는 파트너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의 비용 증가는 인건비와 관련된 개발·운영비용과 마케팅비의 증가 때문"이라며 "영업비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네이버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문종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콘텐츠, 클라우드 등 내년까지의 신사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주목할 만한 규모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기업 합병·사업재편 이후 신용평가 희비

#.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오는 7월 한화그룹 계열 시설관리업체 한화에스테이트를 흡수 합병한다. 회사는 합병 목적에 대해 "부동산·레저 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업 간 합병"이라며 "사업영역 확대, 경영 효율성 증대,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사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냉담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한화에스테이트는 상대적으로 기업 규모는 작으나 꾸준히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재무지표가 비교적 양호함에 따라 흡수합병을 통해 한화리조트와의 사업상 시너지가 기대되고, 부분적인 영업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BB+(등급전망 안정적)"이라는 신용등급을 유지했다.

“LG하우시스 수익 개선 롯데쇼핑 부채 감소효과 기대”
“만도 재무구조 변화없이 SK증권 시너지 창출 불투명”

인수합병(M&A)·기업 분할 등의 과정에서 바뀐 지배·사유구조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14일 신용평가 업계에 따르면 만도(분할)·한화호텔앤드리조트(합병)·LG하우시스(사업부 매각)·SK증권(M&A) 등 분할·합병·M&A 이슈 기업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LX하우시스’로 사명 변경을 앞둔 LG하우시스는 자동차소재·산업용필름 사업부 매각 이슈가 남아 있다. LG하우시스는 4월 현대비엔지스틸과 자동차소재·산업용필름 사업부 매각 및 인수를 위해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제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사업부 매각이 이뤄진다면 영업 수익성 및 EBITDA 창출력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매각대금이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쓰인다면 자체 신용도에도 유의적인 개선이 나타날 것"이라며 기존 신용등급(AA-(부정적))을 유지했다.
SK증권은 인수한 MS저축은행과의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규희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평가·실선임 연구원은 "인수 이후에도 재무 안정성 개선을 위해 유상증자 등 자금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영업지역상의 한계, 낮은 시장 지위, 저조한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을 살피면 저축은행 인수를 통한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도 불구하고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현재 SK증권의 후순위사채 신용등급은 A-이다.
롯데쇼핑은(AA-) 롯데물산과의 지분거래로 부채 감소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신용평가는 "꾸준히 늘어난 차입부담을 낮추기엔 충분치는 않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호텔롯데(AA-)도 재무부담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주행 사업을 몰적 분할기로 한 만도에 대한 평가도 기대 이하였다. 신설 예정 법인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MMS)'은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자율주행 로봇·모빌리티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주행 전문기업이다. 만도는 신설법인의 모회사(100%)로 남게 된다. 선영위 한국기업평가 평가3실 평가전문위원은 "분할 후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면서 연결 관점에서 사업기반과 재무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서 "분할 전 재무에 대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상호 연대보증을 제공하기에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 신용도(AA-(안정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희림 기자 wiseforest@

이스타항공 인수전 하림 하차 쌍방을 vs 성장 '2파전' 압축

건설사 '성장' 우선매수권 가져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 본입찰에 쌍방울그룹이 참여하면서 우선매수권자와 2파전을 벌일 전망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이스타항공 매각주관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매각 금액이 적힌 입찰서류 접수를 이날 마감했다.
이날 본입찰에는 쌍방울그룹의 계열사인 광림 컨소시엄만이 참여했다. 해운사 팬오션을 계열사로 보유한 하림은 인수를 포기하고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말 이뤄진 인수희망서(LOI) 접수에는 하림그룹과 쌍방울그룹 등 10여 곳의 기업과 사모펀드 운용사가 참여했다.
이번 매각은 조건부 인수예정자가 있는 '스트라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인수예정자를 선정한 상태에서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인수예정자가 인수권을 갖는 방식이다.
이스타항공이 입찰 공고를 내기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 중견기업은 종합건설업체 ㈜성정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골프장 관리업,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다.
이날 본입찰에 하림이 불참하면서 이스타항공 인수전은 사실상 우선매수권자인 성장과 쌍방울 컨소시엄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이 조건부 투

자계약사상 매각금액보다 낮으면 조건부 투자계약자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다른 인수 희망자가 본입찰에 써낸 가격이 우선매수권자보다 높으면 인수자가 바뀔 수 있다.
최종 인수 후보자는 21일 결정된다. 이후 정밀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투자계약이 체결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의 공익채권인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은 700억 원, 채권자가 법원에 신고한 회생채권은 18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스타항공이 채권단과 채권변제 비율을 합의하면 실제 변제 금액은 낮아질 수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10월 전북 군산을 본점으로 설립했다. 2019년부터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M&A를 추진해왔으며 제주항공의 인수가 결정됐으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난해 7월 인수가 무산됐다. 이에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2월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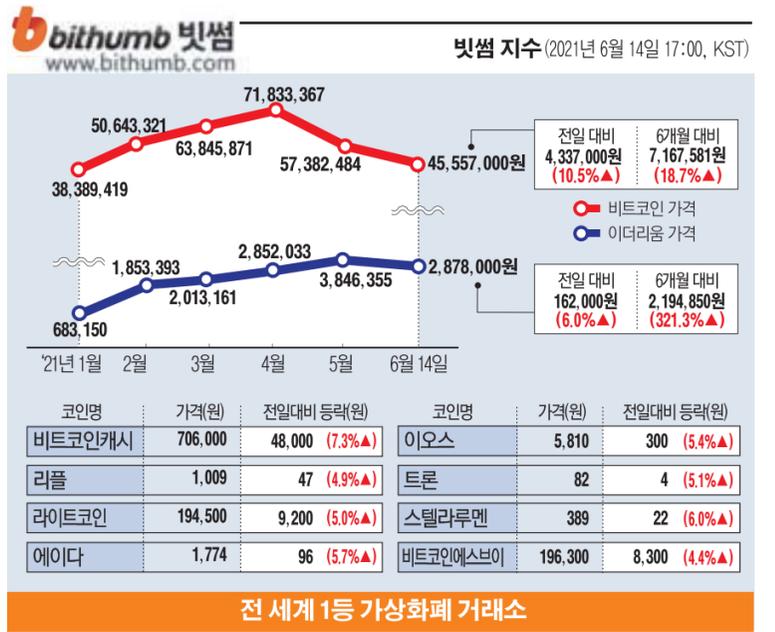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 내년 목표 상장 재추진

공모시장 활성화·업황 회복 영향
현대오일뱅크가 내년을 목표로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재추진한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는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상장 재추진을 위한 지정감사인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4.13%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월 현대중공업지주가 현대오일뱅크 지분 17%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다 잠정 중단한 바 있다. 2년 5개월 만에 상장이 재추진

되는 셈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저금리 정책으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고, 공모시장 활성화를 등 상장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유가 상승세 등 정유 업황 회복과 현대오일뱅크의 1분기 호실적이 이번 상장 추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대중공업지주 관계자는 "현대오일뱅크는 지정감사인 신청을 바탕으로 상장을 재추진한다"며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안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KB자산운용, 메타버스 펀드 출시

KB자산운용은 14일 업계 최초로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메타버스 대표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과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오도테크, 엔비디아, 유니티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로블록스, 네이버, 하이브)과 가상세계 인프라 관련 기업(아마존, 쉐프, 스노우플레이크) 등에 투자한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70%로 가장 높고, 산업별 비중은 하드웨어와 플랫폼관련 비중이 각각 30% 내외로 가장 높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압구정 누르니 반포·개포 집값 쑥, 강남 재건축 '히비'

‘거래허가제 여파’ 압구정동 거래 실종, 대치동도 급감
규제 빚겨간 반포동 ‘주공1단지’ 보름 만에 2억 올라
개포동도 ‘반사이익’ 주공5·7단지 등 신고가 잇따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에선 지난달 14일 전용면적 108㎡형 아파트가 47억 원에 팔렸다. 같은 평면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 아파트에서 거래된 가격 중 가장 비싸다. 같은 달 매매된 직전 최고가(45억 원)와 비교해도 보름 만에 2억 원이 올랐다. 지난달 재건축을 위한 이주에 들어간 이 아파트는 한강변 재건축 대어(大魚)로 꼽힌다.

맞은 편 ‘AID 차관주택(반포주공1단지 3주구)’ 전용 72㎡형도 지난달 7일 30억 원에 매매됐다. 역시 신고가다. 4월 말 28억 원으로 최고가를 세운 지 한 달도 안 돼 기록이 같았다. 3주구도 하반기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대로 이주에 나서 재건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뜨겁다. 강남구 압구정·대치동 등이 규제 주춤하는 사이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개포동 등으로 활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반포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상당 부분 진전되면서 거래 가능한 물건이 희소해졌다”며 “재건축을 마친 주변 단지들이 3.3㎡(1평)당 1억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로 거듭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압구정동과 대치동 일대 재건축 초기 단지와 상반된다. 이들 지역에선 최근 들어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가 제한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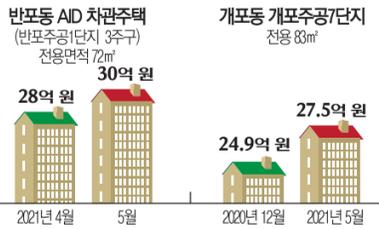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구	청담·삼성·대치·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전라청비구역(1~4구역)

난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데 이어 4월부터 압구정동 등으로도 이를 확대했다. 재건축 사업 등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지분이 18㎡(주거지역 기준)가 넘는 주택을 사려면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고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실제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압구정동에선 아직 아파트 거래가 한 건도 승인되지 않았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아파트 거래량

반포·개포지역 아파트 실거래가



(45건)이 직전 1년간 거래량(203건)의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반포동 K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제로 강남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이 줄었다”며 “매물은 귀하지만 반포 등 사업 속도가 빠르면서도 상품성이 보장된 지역으로 돈이 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포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제 반사이익을 누리는 단지로 꼽힌다. 개포동에 남아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압구정동과 마찬가지로 초기 사업 단계에 있지만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제외되면서

히비가 같았다. 같은 재건축 초기 아파트라도 개포동에서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 등이 자유롭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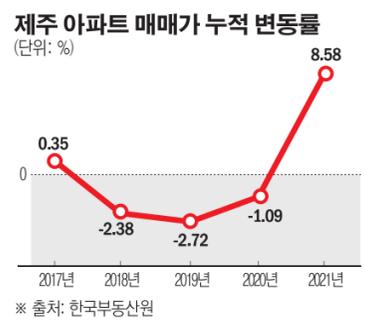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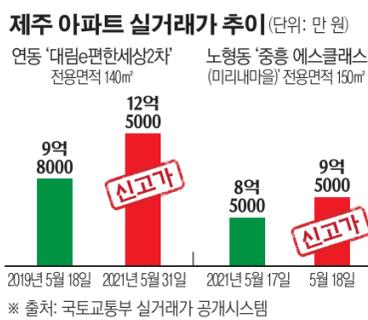
사업 속도도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 개포동 주공5단지는 지난해 말, 개포주공6·7단지는 올해 초 각각 조합 설립을 마쳤다. 이에 따라 개포동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년 실거주 의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실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 제도)를 피할 수 있게 됐다.

호재가 겹치면서 가격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개포7단지 전용 83㎡형은 지난달 27억5000만 원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말 직전 최고가(24억9000만 원)보다 2억 원 올랐다. 개포5단지에서도 전용 83㎡형 1층 물건이 27억3000만 원에 팔리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1년 전만 해도 같은 면적 1층 물건은 18억6000만 원에 거래된 게 최고가였다. 현재 개포5단지 전용 83㎡형은 28억 원까지 호기한다.

박종화 기자 pbell@

다시 들쭉이는 제주, 외지인 거래 ‘활활’

올 들어 아파트값 8.58% 상승
‘10억클럽’ 가입단지 속속 등장
10가구 중 3가구 ‘외지인’ 매입
‘비규제 반사이익, 관심 높아져’



잠잠하던 제주도 주택시장이 다시 들쭉이고 있다. 사실상 전국이 정부 규제의 사정권에 들면서 투자자들의 발길이 제주로 향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이른바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14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제주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이번 주까지 8.58% 올랐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제주 아파트값은 지난달 셋째 주(17일 기준)에만 1.17% 급등했다. 부동산원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만에 역대 최고치다.

최근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호가나 실거래가가 10억 원을 웃도는 ‘10억 클럽’에 가입하는 아파트 단지도 늘고 있다.

제주시 연동 ‘대림 e편한세상2차’ 전용면적 140㎡형은 지난달 31일 12억50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져 신고가를 기록했다. 거래가 활발했던 2019년 실거래가는 9억

8000만 원 선으로, 2년 새 2억7000만 원 오른 셈이다. 현재 호가는 13억 원에 형성돼 있다.

제주시 노형동 ‘중흥 에스클래스(미리내마을)’ 전용 150㎡형은 지난달 18일 9억5000만 원에 팔렸다. 이는 전날 8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종전 최고가보다 1억 원 오른 금액이다. 현재 호가는 10억 원에 달한다.

제주시 연동 A공인 관계자는 “최근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회복세가 이곳 제주 아파트값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로 아파트 매수에 가담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 부쩍 많아졌다”고 전했다.

분양시장 열기도 뜨겁다. 연동에서 공급한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2단지’

는 4월 1순위 청약에서 204가구 모집에 2802명이 몰려 1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지인의 투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2191가구 중 30%는(658가구) 외지인이 샀다. 외지인 매입 비중은 지난해 8월 15% 수준에서 3월 31.25%까지 확대됐다.

송승현 도시경제대표는 “전국 집값이 급등하면서 제주도 부동산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며 “비규제지역인 제주도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도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대웅 기자 toto@

‘복병’ 만난 염리5구역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빌딩 소유한 KT “청년주택 독자 개발”
추진위 “KT부지 빼고 재개발... 사업성 큰 타격 없어”

재개발 사업 부활을 향해 가던 서울 마포구 옛 ‘염리5구역’이 복병을 만났다. 구역 한가운데 땅을 갖고 있는 KT가 재개발과는 별도로 독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탓이다.

KT의 부동산 관리 회사인 KT에스테이트는 최근 서울시와 마포구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신청서를 냈다. KT에스테이트는 염리동에 있는 KT 마포솔루션빌딩을 헐고 이 자리에 수백 가구 규모의 청년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회사는 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 계획 열람·공고 절차를 마치고 현재 서울시, 마포구와 인·허가를 얻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도 청년주택 사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 KT 건물 이 옛 염리5구역 한가운데 있어서다. KT 건물은 대로에서 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자리 잡고 있다.

염리5구역은 과거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 이견으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자 주민 일부가 자체 추진 위원회를 꾸려 민간 재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다. 마포구는 염리5구역을 재개발 구역으로 재지정할지 검토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역 주민들은 청년주택 건설이 염



서울 마포구 염리동 KT 마포빌딩 전경.

리5구역 재개발 사업에 끼칠 영향을 우려한다.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공백이 생기면 사업성에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서다. 재개발 재개를 추진했던 주민들이 KT에 자신들에게 부지를 매각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근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아무래도 KT 부지가 빠지면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T에스테이트 관계자는 “이전부터 부지 매각 요청은 있었지만 서울시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우리는 오래 전부터 독자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다.

염리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KT 부지를 빼고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으로선 KT 부지를 빼더라도 사업성에 큰 타격은 없다”고 말했다.

클/사진 박종화 기자 pbell@

‘깜깜이’ 논란 주거정책심의위 이번엔 달라질까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발의
여야 “운영방식 개선” 한목소리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을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정심은 정부 주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중요 정책 등을 심의·결정한다.

그러나 그동안 주정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13명) 이상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인 탓이다. 이 때문에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많

았다. 주정심 회의록과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등 심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입각에선 주정심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외압이 행사되거나 시장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주정심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자칫 주택 공급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에 있어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현대엔지니어링, 러시아 가스처리시설 공사 수주

공사비 1000억 규모

현대엔지니어링은 1000억 원 규모의 러시아 오렌부르크 가스처리시설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러시아 오렌부르크주에서 러시아 민간 석유기업 노비 포톡(Novi Potok)사가 발주한 1000억 원 규모의 가스처리시설 EPC 계약을 체결했다. 이달 중 오렌부르크 주지사 데니스 파슬러, 현대엔지니어링 모스크바 지사장이 참석해 착공식을 진행하고 본격적인 공사

에 들어간다.

이번에 수주한 러시아 오렌부르크 가스처리시설은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1500km에 있는 오렌부르크주 부주목 지역의 유전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정제 처리 공장 및 유틸리티,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EPC 사업이다. 공기는 22개월이다.

이번 수주는 국내 건설사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수주하는 EPC 프로젝트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화공플랜트 설계 기술력과 수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기자 lly0403@

서울시 “해체공사 상시 감리 도입 위반 시 강력 처벌”

오세훈 시장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발표

3회 이상 현장 직접 불시점검 CCTV 연계 정보화시스템 구축

서울시가 건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를 ‘상시’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에 나선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사건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미비한 제도를 철저히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9명의 생명을 앗아간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는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다”며 “안전이라는 가치가 불법으로 훼손된 건설공사장의 참혹한 현실을 보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돼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7명 중 9명이 숨



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에 서울시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로 해체공사를 감리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2017년 시가 자체적으로 해체허가대상 건축물에 상주감리 체계를 도입했지만 상주감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보니 실제 현장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건설현장에서 고질적인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데다 설상가상으로 법률 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과 처벌조치 이뤄지지 않아 무고한 희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법률 개정에 앞서 서울 상주감리 건설현장 해체공사장에 3회 이상 직접 불시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감리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공사 중 위험이 발생했을 때만 감리자를 처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해체계획

서 내용과 달리 철거를 진행하거나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확보와 같은 안전관리대책 소홀 등 세부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 처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또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 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게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버스정류장, 대로변, 어린이 통학로, 학교 등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곳에 있는 건축물은 안전 확보 방안이 해체계획서에 미리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도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났다. 오 시장은 “공사 허가 시 총괄 관리조직 구성,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 제출 등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현장에서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모든 공사 과정을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건설현장 특성상 감리와 시공사의 관리에만 의존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사장에 설치하는 CCTV를 연계,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섬주민들 해군함정서 백신 접종 14일 임시 예방접종센터로 지정된 해군 한산도함에서 전남 진도군 도서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부터 한산도함을 활용해 백신 접종이 어려운 낙도 및 무의도 25개 지역에서 3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첩보보고서 대리작성 지시 징계처분 적법”

법원 ‘정직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부하 직원에게 첩보보고서를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를 내리고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첩보수집비를 수령한 경찰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정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 외사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3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부하직원 B 씨에게 별도로 첩보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총 34건의 첩보보고서를 임의로 대신 작성토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B 씨가 작성해준 첩보보고서를 근거로 본인의 카드 사용 내용을 정산해 총 84건의 첩보수집비 462만 6160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2019년 4월 A 씨의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한 성실의

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의결했다.

A 씨는 “모범공무원으로 국무총리표창을 비롯해 다수의 표창을 받았다”면서 “실제로 첩보활동을 했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단순한 행정업무에 불과해 서무에게 대신 작성을 지시한 것은 부당한 지시라 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7개월 동안 매일 2건씩 원고 명의 첩보보고서가 작성 및 제출됐는데 원고가 보고서의 주제를 선정하거나 내용과 범위를 특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보고서의 작성 주체라거나 실질적으로 작성에 관여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첩보수집비는 수사관이 얻은 첩보를 근거로 작성 및 제출된 보고서에 대한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면서 “첩보의 비밀성과 내용이 중요해 수사관들의 전체 회의에서 첩보 내용이 논의됐다고 하더라도, 각자가 수집해 온 첩보에 대한 보고서를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나경연 기자 contest@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계획 보고 등 관련자료 확보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팀이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검은 14일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 서버를 압수수색해 DVR 수거 관련 영상, 지시·계획 보고, 전자정보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특검은 13일 출범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 국회,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 등 사건을 다뤘던 관계기관으로부터 800여

권 분량의 기록과 약 40테라바이트(TB)의 전자정보 자료를 압수해 검토했다.

의혹의 내용과 근거, 당시 상황 등을 구체화하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관계인들에 대한 대면조사도 실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검증은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과 후속 조치를 위해 DVR 하드디스크 원본을 국과수에 감정의뢰했다. 영상 복원데이터, DVR 수거 동영상, 선체 내부 작업 동영상 등도 감정을 의뢰했다.

특히 특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해군(본부, 진해기지사령부, 해난구조전대), 해경(본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30여 박스의 서류와 100TB 이상 분량의 전자정보 등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당신의 내일을 여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아이의 꿈이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청년의 도전이 내일로 향하도록
금융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이 되도록
우리 경제가 더욱 탄실해지도록
은행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장위뉴타운 재정비 총력… 한예종 송파 이전 옳지 않아”

서울 동맥을 가다 ②

이 승 로 성북구청장

“장위동 일대를 쾌적한 자족형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11일 이투데이와 만난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최근 정비구역 해제구역 중 장위 8, 9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고, 장위12구역의 공공주도 사업지 대상으로 추천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장위뉴타운은 전체 3만 가구 규모의 초대형 뉴타운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전체 부지의 약 절반 정도가 2012년 정비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방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시가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랜 기간 망치 선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구청장은 “장위뉴타운 전체를 재정비하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이전 이슈와 관련해 이 구청장은 존치를 강하게 주

한예종 이전 6000억 국고낭비 지역 상권 타격·균형발전 저해

방과 후 초등아동 돌봄 공간 ‘키움센터’ 올해 10곳으로 확대

20개 동별 주민 만나 의견수렴 700여 건 중 150건 현장 해결

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선 왕릉이 지난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면서 부지가 겹치는 석관동캠퍼스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한예종 송파 이전을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이전하려는 장소가 그린벨트”라며 “해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성북구는 4월 ‘성북구-한예종 지역상생 학술연구용역’에 착수하며 석관동캠퍼스와 성북구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한예종 이전은 인근 지역의 임대사업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 슬럼화를 우려했다. 이어 “한예종 이전에 6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고 낭비와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정책과 모순되는 결정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간 가장 큰 성과로 ‘우리 동네키움센터’를 꼽았다.

키움센터는 만 6세부터 12세 초등아동이 방과 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공간이다.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이 구청장이 공들인 사업이다. 키움센터는 구내 현재 5곳이 운영 중이고 올해 1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키움센터는 다른 공공시설보다 의미있는 시설”이라며 “초등 학생들과 학부모까지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자랑했다.

이 구청장은 취임 초부터 현장·사람 중심의 소통 행정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슬로건 아래 구정을 이끌어 왔다. 지난 2년간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며 20개 동별로 400~500명의 주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전은 지역경제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성북구

민을 만나 약 700여 건의 주민제안을 받았고 즉시 해결 가능한 150건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했다. 시간이 걸리는 550여 건 중 현재 80%는 해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 접촉이 어려워 올해는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 3만5000여 명의 구민이 접속해 채팅과 댓글로 소통했다. 그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지속될 때에는 20개 동별로 온라인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현장 행정을 통해 쌓은 주민과 행정의 소통과 믿음이 코로나19 위기에 빛을 발하며 신뢰가 더 굳건해졌다”며 “새로운 100년의 성북을 위해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평 기자 pepe@

서울시, 조선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유적 공개

21~23일 총 3회 진행
오늘부터 사전예약 신청

서울시는 광화문 일대 핵심지에 있는 중요 문화재가 정비되는 현장을 시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의정부(議政府)’ 유적 일부를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7년여에 걸친 학술연구·발굴조사 끝에 지난해 9월 24일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58호)로 지정된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 의정부 유적을 도심 속 역사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의정부 터에서 발굴된 건물지, 초석 등을 보존 처리한 뒤 유구 보호시설을 세워 유적을 원위치·현 상태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주변에 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유적 현장공개 프로그램은 21일~23일까지 총 3회 진행된다. 15일부터 서



서울시는 2013년 부분 발굴조사를 통해 옛 ‘의정부’의 유구와 유물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7년 만에 의정부 터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발굴조사 결과 그동안 사료를 통해 추정만 했던 의정부 주요건물 3채의 위치와 규모를 실제 유구를 통해 확인했다. 뉴스시

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사전예약으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며 대회 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관람하는 시민은 의정부지 내 정보당(영

의정·좌의정·우의정 근무처), 협선당(종1품·정2품 근무처), 석확당(재상의 거처) 등 주요 유구를 통해 조선시대 관청의 배치, 규모, 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 유적의 보존처리 과정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건물지 석부재를 씻거나 보존처리하는 모습 등 평소 보기 어려운 문화재 보존처리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의정부 유적 현장에서 4년간 발굴조사를 이끌었던 학예연구사의 생생한 발굴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5월 광화문광장 조성 과정에서 발굴된 삼군부, 사헌부 터 등 육조거리(조선시대 관청가)를 조명하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해 의정부를 비롯한 광화문 일대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환기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의정부 터 발굴조사를 통해 경복궁 중건(1865년)과 함께 재건된 의정부 중심건물, 부속건물, 후원(연못과 정자)의 기초부를 확인했다. 의정부 터에 선 백자정화온분문 향아리편 등 760여 점의 다양한 유물도 발견됐다.

홍인석 기자 mystic@

관악구, 홍보매체 활용해 ‘생활폐기물 단속’ 나선다

서울 관악구가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수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관악구에 따르면 지난해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결과 생활폐기물 배출 금지일(토요일)을 인지하는 구민이 48.7%에 불과하다. 이에 관악구는 6월부터 현수막, 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해 알리고 있다.

생활폐기물 배출 요일은 월요일~금요일이며 배출시간은 18시~24시, 가로지역 22시~01시, 배출장소는 내 집이나 점포 앞이다. 착각하기 쉬운 일반·음식물쓰레기 구분해야 한다. 홍보와 함께 무단투기 단속도 나선다. 관악구는 주말 남부순환로, 관악로, 봉천로 등 관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6월 한달간 취약 지역과 시간대에 무단투기보안관 특별근무를 해 집중 계도·단속을 추진한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59명과 동 주민센터 공공·희망·자활 근로 청소인력을 활용해 상습무단투기 주요 대로변 상가와 주택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 확인과 계도, 주변 쓰레기 정비 등을 준비한다. 이동형 CCTV 설치, 다목적 CCTV를 활용해 통합관제센터 관제 강화하고, 첨단 스마트 경관 운영 등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한 시스템도 가동한다.

특히 주말 주요 도로 재활용품 위주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를 위해 직영 기동반을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7개 청소대행업체 구역별 기동반을 신규 편성해 쓰레기 방지에 따른 도시미관 환경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7월부터는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제작·배포해 사립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색깔의 재활용 봉투로 무단투기 폐기물과 구별이 어렵고, 생활폐기물 혼합 배출로 인한 재활용률 감소를 막기 위해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살기 좋고 깨끗한 관악 만들기에 주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인석 기자 mystic@

송파구 ‘딥러닝 개발자 양성과정’ 운영

서울 송파구는 기업 채용수요가 높아진 딥러닝 개발자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프로젝트 기반 딥러닝 개발자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딥러닝(Deep Learning)은 음성 인식, 이미지 식별, 예측 등 사람의 작업을 대신 수행하도록 컴퓨터를 학습시키는 기술이다. 특히 인공지능(AI)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업에서는 딥러닝 개발 역량을 지닌 인재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딥러닝 자바 공통과정 △실무 프로젝트로 총 22회로 176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며 비용은 전액 무료다.

참여자에는 ‘딥러닝 자바 공통과정’에서 웹 애플리케이션(웹) 개발, 공개 응용프로그램 개발환경 활용, 데이터 수집 등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배울 수 있다.

‘실무프로젝트 과정’은 실제 기업의 채용수요가 많은 기술 활용 훈련에 초점을 맞췄다. 신속하게 웹서버 구축을 돕는 스프링부트를 활용한 웹 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서버 개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이용, 화면 처리 프로젝트 기획·제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송파구는 교육 수요생을 대상으로 취업 멘토링, 취업박람회 참가, 딥러닝 개발자 채용수요 기업과 취업 연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미취업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25일 3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은 23일까지 ‘딥러닝 개발자 과정 모집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송파구 일자리정책담당관이나 서울동북권기업발전협회로 하면 된다.

홍인석 기자 mystic@

“폭염 걱정없이 시원한 여름 나세요”

중구, 취약계층 폭염피해 예방키트 1500개 제작·지원

서울 중구는 폭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주민을 위해 폭염피해 예방키트를 제작해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구청 대강당에서 중구청 직원들은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구지역자율방재단원 30명과 함께 1500개의 폭염피해 예방키트를 직접 제작했다.

폭염피해 예방키트는 보랭백, 쿨토시, 쿨스카프, 선스틱, 모기기피제, 양우산, 물티슈, 손소독티슈, 마스크, 생수, 행동요령 리플릿 11종으로 구성했다.

폭염 취약계층 전담공무원은 제작한 폭염피해 예방키트를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면서 거주지,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폭염특보 발효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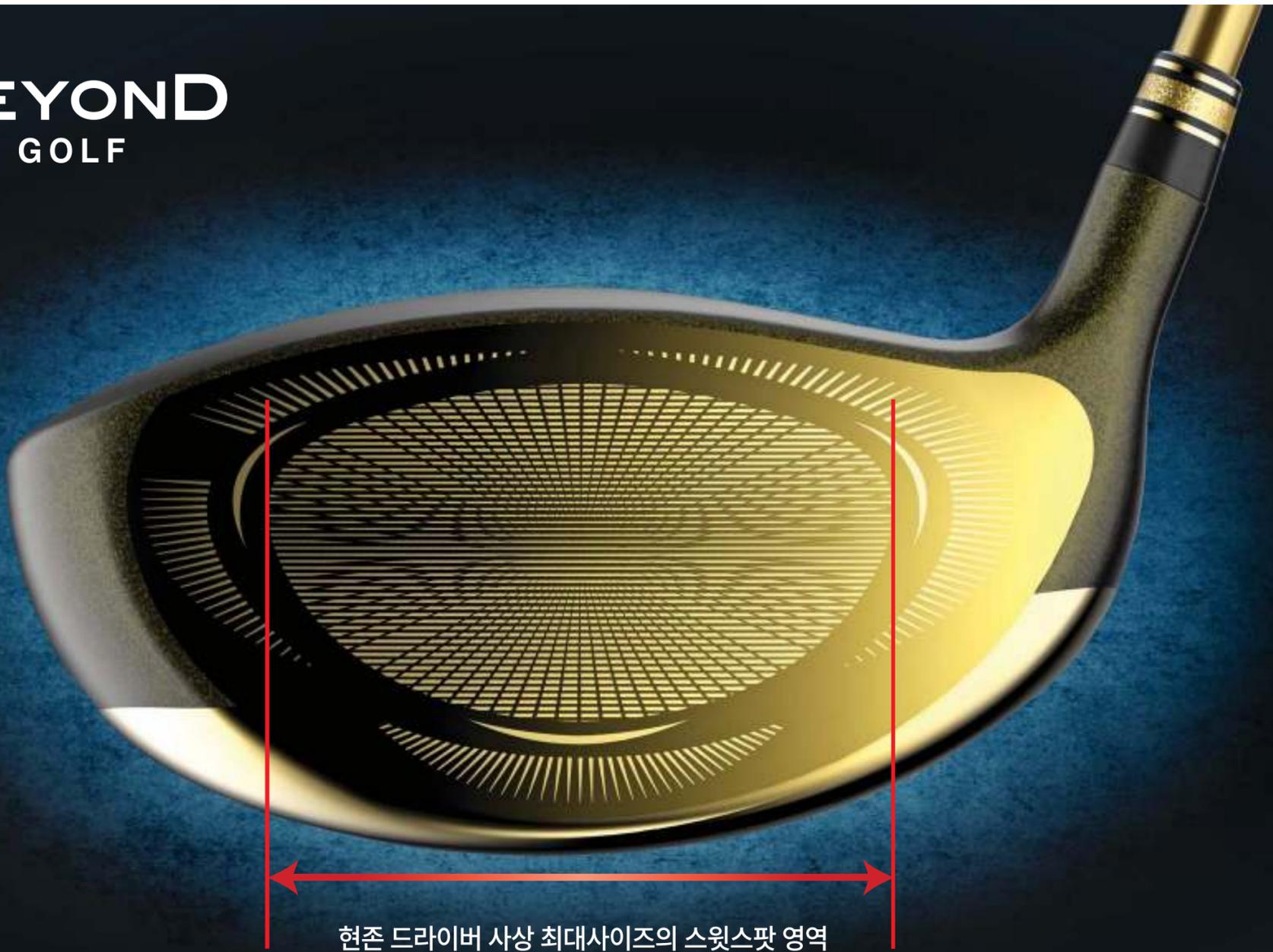


서양호 중구청장(가운데)이 폭염피해 예방키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중구

구는 지난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독거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1289명을 대상으로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폭염특보 발효 후 48시간 이내 안부 확인 등 집중 관리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BEYOND GOLF



현존 드라이버 사상 최대사이즈의 스위트팟 영역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C.O.R 0.87 이상의 고반발 드라이버 기준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스윙 2,000번 견딤)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사이즈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세계 최대의 페이스/스위트팟 넓이를 통해 임팩트시 빗맞아도 최대한 똑바로 가는 타구를 제공
- 아마추어 골퍼의 약점인 슬라이스와 훅이 발생할 확률을 현저히 줄여 자신감 있게 스윙을 할 수 있다
- 총중량 223g-255g의 최경량 수준으로 가볍고 편해서 다루기가 매우 쉬우며 부담감이 없다. 스윙스피드가 빨라져 더 긴 비거리가 나간다.
- 비온드 센터 방문시 PGA프로들이 사용하는 최신의 가장 정확한 실내 분석 시스템으로 고객의 스윙을 정밀 분석 / 비거리에 초점을 둔 1:1 원포인트 레슨 제공
- 런을 극도로 많이 나오게 하는 비온드만의 I.M.T(Impact Maximum Technology)구조로 최대한 스프링을 억제하여 착지 후 다량의 런 발생으로 비거리 상승 효과
- 근력이 다소 떨어지는 시니어층에게 비거리와 방향성을 좌우하는 모든 요소를 극한까지 높인 새로운 성능의 차세대 고반발 드라이버

기존 고반발 클럽보다 더 나간다 | 비온드는 비거리로 증명합니다



비온드골프 강남점 / 분당점

비온드 센터 방문시 반드시 고객님의 클럽을 지참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온드의 "특별한 비거리"를 실감하기 위해 자신의 최대 비거리가 나오는 클럽과 비교하면서 시타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 결과 10명중 9명이 '비온드'쪽이 더 긴 비거리와 늘어난 런이 나온다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

“중고 신발 1000개 모아 실험, 신발 냄새 꼭 잡았죠”

삼성전자 비스포크 슈드레서 개발 이야기

가장 큰 고민 ‘탈취’, 신발서 발생하는 냄새·가스 분석 소재 손상되지 않는 최적의 온도 찾고 살균기능도 장착

의류 청정기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후, 신발 역시 옷처럼 매일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가 5월 선보인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건조는 물론, 탈취와 살균까지 완벽하게 해내며 사용자들의 고민에 해답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14일 뉴스를 통해 프리미엄 신발관리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슈드레서 개발진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신발은 의류만큼이나 신체와 밀착되어 있지만, 세탁 주기는 의류보다 훨씬 길다. 슈드레서는 약 2년 전 사용자들이 의류처럼 신발도 주기적인 관리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에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김명선 프로는 “일시적인 탈취제 사용이나 햇볕 아래 건조하는 것을 넘어 신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기획 배경을 설명했다.

사용자들이 꼽은 신발 관리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탈취’였다. 개발진은 가장 먼

저 신발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가스들을 세세하게 분석했다. 이중희 엔지니어는 “절저한 실험을 위해 임직원들의 신발은 물론, 중고 신발까지 약 1000개를 모았다”고 말했다.

비스포크 슈드레서의 탈취는 ‘냄새 분리’와 ‘가스 분해’ 등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뉜다. 먼저 슈드레서 내부의 온도를 40도로 높이고, ‘에어 워시’로 신발 구석구석 바람을 쏘아 냄새를 털어낸다. 그런 다음 분리된 냄새 입자를 ‘UV 냄새분해필터’로 분해하면 땀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

온도가 높을수록 탈취가 쉽지만, 다양한 소재로 만들어진 각각각색의 신발들을 손상하지 않는 최적의 온도를 찾아야 했다. 이중희 엔지니어는 “40도는 사람의 체온과 가장 흡사하다. 신발이 상하지 않으면서 냄새를 제어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온도였다”고 설명했다.

개발진은 높아진 위생 기준에 맞춰 비스



비스포크 슈드레서를 개발한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이중희(왼쪽부터)·오진영(엔지니어), 김명선 프로, 김명규 디자이너.

포크 슈드레서 역시 강력한 살균 기능도 장착했다. 슈드레서 내부 천장에 장착된 ‘제논(Xenon) UVC 램프’는 가장 상단 칸에 놓인 신발의 전면은 물론, 바닥까지 살균해 준다. 제논 UVC 램프는 LED, 수은 대신 제논이라는 원소를 활용해 내구성 과 친환경 요소를 모두 잡았다. 이중희 엔지니어는 “국내 가정용 건조기 제품 중 제논 UVC 램프가 탑재된 것은 비스포크 슈드레서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비스포크 슈드레서’는 이제 첫발을 내디뎠지만, 개발진은 앞으로 현관에 슈드레서만의 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명규 디자이너는 “슈드레서가 아직 생소한 제품인 만큼, 많은 분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이중희 엔지니어는 “에어드레서처럼 점차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았으면 한다. 추후 세척 기능까지 더해지면 더욱 좋을 것 같다”는 바람을 전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독실한 유대교 신자 베네트 이스라엘 첫 ‘키파’ 쓴 총리 무지개연정 출범…女장관 9명

12년간의 베냐민 네타냐후 체제를 마무리한 이스라엘이 연정 수립과 함께 여러 기록을 만들어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2년간 연정을 이끌 나프탈리 베네트 <사진> 차기 총리는 73년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키파를 착용하는 총리로 기록됐다. 키파는 남자 유대교도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다.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 베네트 총리는 키파를 착용한 채 업무에 돌입한다. 베네트는 49세에 총리에 오르게 돼 1996년 46세에 처음 총리가 된 네타냐후에 이어 두 번째로 어린 총리라는 기록도 갖게 됐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역대 최다 여성 장관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이번 내각은 교통장관을 비롯해 노동, 내무, 교육, 경제, 에너지 등 총 9명이 여성으로 구성됐다. 가장 어린 장관은 37세의 메이라브 코헨 신임 사회평등 장관이고, 경제 장관이 된 오르나 바르비바이가 58세로 내각 최고참이다.

연정에 아랍계 정당도 포함된 것도 최초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반 네타냐후 불복을 위해 좌파인 노동당과 우파는 물론, 아랍계 정당인 라암 당까지 포섭했다. 라피드 대표는 순환제 합의에 따라 베네트 총리가 2023년 8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후 자리를 물려받을 예정이다.

고대영 기자 kodae0@

PGA 김시우·이경훈 이어 KPGA 김주형 ‘시즌 3승’

주목받는 CJ대한통운 스포츠 스폰서십

CJ대한통운 소속 프로골퍼 김주형(19) 선수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SK텔레콤 오픈 2021’에서 시즌 첫 우승을 일궈냈다. 올 시즌만 소속 골퍼가 세 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CJ대한통운의 스포츠 스폰서십이 주목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전날 제주 서귀포 소재 핀크스 골프클럽(파71)에서 소속 프로골퍼 김주형 선수가 시즌 첫 우승을 차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올 시즌 두 번의 준우승

을 기록하며 누구보다 우승이 간절했던 김주형은 대담한 승부를 이어가며 최종합계 14언더파 270타로, 11언더파 273타의 김백준을 제치고 올 시즌 첫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CJ대한통운은 올 시즌만 소속 선수가 3승을 올리며 스포츠 스폰서십의 새로운 명가로 주목받고 있다. 1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우승한 김시우 선수, AT&T 바이런 넬슨 대회에서 우승한 이경훈 선수에 이어 KPGA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에서 시즌 3승을 합작한 CJ대한통운 소속의 김시우(왼쪽부터), 이경훈, 김주형 프로골퍼.

코리아 투어에서 김주형까지 우승을 신고했다. 소속 선수의 선전으로 자사 마케팅 뿐 아니라 한국 남자 골프의 위상을 올리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주형은 바로 KPGA 입회 후 최단기간 우승(3개월 17일)을 달성한 차세대 기

대주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KPGA 코리아 투어 4년 시드를 확보한 김주형은 대회 종료 후 “간절히 시즌 첫승을 이뤄내 기쁘고, 믿고 지지해주는 팬들과 CJ대한통운에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포스코케미칼, 1호 석좌교수 위촉 이성만 강원대 재료공학부 교수



포스코케미칼은 14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석좌교수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1호 석좌교수로는 이성만 <사진 오른쪽> 강원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 교수는 국내 리튬 이차전지 음극재 분야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리튬 이차전지용 음극 소재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dy@

사학연금, 류춘열 상임감사 임명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14일 신임 상임감사로 류춘열 전 대전교육청 감사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류춘열 상임감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임명을 받았다. 류 신임감사의 임기는 2023년 6월 13일까지 2년이다.

류 감사는 경남대학교 무역학을 전공하고 성균관대학교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이후 관세청,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거쳐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조성진 기자 csjin2002@

조코비치, 4개 메이저대회 2회 이상씩 우승…역대 세 번째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пас(5위·그리스)에게 4시간 11분 대결전 끝에 3-2 역전승을 거둬 5년 만에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정상에 복귀했다. 조코비치는 이번 우승으로 4대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을 모두 2번 이상씩 우승한 역대 세 번째 선수가 됐다.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에서 9회, 윌빙던 5회, US오픈 3회 정상에 올랐고, 프랑스오픈은 이번이 두 번째 우승이다. 왼쪽부터 호주오픈, 윌빙던, US오픈, 프랑스오픈 우승 후 우승컵에 입맞추는 모습. AFP연합뉴스

영 여왕 만난 바이든 “어머니 떠올라…백악관 초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과 회동하고, 그를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종료 이후 아내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런던 교외에 있는 윈저성에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만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면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관대함 등을 언급하면서 “기본 상

하지 않을 텐데, 여왕의 외모와 너그러움이 어머니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왕은 우아했으며,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그는 내가 곧 만나게 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엘리자베스 여왕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는 사실도 함께 밝혔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1951년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을 만난 이후 린든 존슨 전 대통



령을 제외한 모든 역대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만난 13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변호선 기자 hsbun@·사진 AP뉴스

인사

-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종무실 중무2담당관 윤양수 △국민소통실 소통협력과장 천은선 △관광정책국 관광개발과장 권도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 윤재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신용선 △서울특별시 파견안병호
-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장관비서관 김수진
- ◆신아일보 △건설부동산부장 천동환

부음

- ▲장병춘(농업) 씨 별세, 이기화 씨 남편상, 장미란(오늘경제 금융부 기자)·은옥·훈배 씨 부친상 = 13일, 괴산성모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11시, 043-833-4411
- ▲정삼씨 씨 별세, 심순미 씨 모친상, 김성태(기술보증기금 홍보실장) 씨 장모상 = 14일, 광주광역시 천지장례식장 501호실, 발인 16일 오전 6시 40분, 062-713-5052
- ▲조성범(겨레살림공동체 운영위원장) 씨 별세, 조형준·은정 씨 부친상, 박중현 씨 장인상, 조준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씨 형님상 = 13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031-384-2464

홍준욱의 머니무브



EAR리서치 대표

2008년 초 딜링룸의 멤버와 각계 전문가가 모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 인지를 전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떤 참석자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주장을 펼쳤다. “앞으로 중국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의 연관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끝없이 늘어날 것이니 우리 경제도 ‘고원(高原) 경제’를 누릴 것이다.”

지난 28년 동안 이코노미스트, 즉 경제분석가 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의 주식시장 붕괴를 경험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당시 필자는 한 은행의 딜링룸, 즉 외환 및 파생상품 트레이딩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해 초, 딜링룸의 멤버와 각계 전문가가 모여 경제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전망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때 절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어떤 참석자가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주장을 펼쳤다. “앞으로 중국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지리적 여건이나 산업의 연관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끝없이 늘어날 것이니 우리 경제도 ‘고원(高原) 경제’를 누릴 것이다.”

고원경제란, 대관령처럼 높은 산 위에 평평한 들이 펼쳐지듯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2008년 여름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의 벽을 넘어서며 강력한 인플레이가 발생한 데다, 미국과 유럽 등의 수요마저 감소한 충격으로 중국 경제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심각한 불황을 겪고 말았다.

십수 년이 지난 일이지만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당시 들었던 ‘고원경제’라는 말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과 연루

주식시장은 어떨 때 무너질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는 1929년 10월 14일 투자자 모임에서 “주가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고원(高原)에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지만, 열흘 뒤 대공황의 시작을 알린 ‘검은 목요일’이 출현한 데 이어 3년간 다우지수가 80% 이상 폭락하는 역사상 최악의 약세장이 찾아왔다.

주식 가격이 오르고 큰돈을 번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장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던 이가 큰돈을 버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한다. 예금을 인출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시장금리는 더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참고로 2008년 3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가 5.3%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금리가 상승할 때 주식시장에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주가수익비율(PER)이 50배에 이르는 기업 A를 생각해보자. A기업은 미래 전망이 밝은 투자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어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시장금리가 5% 이상일 때 은행에서 대출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A기업의 주가 수익률(이익/주식가격x100)이 2%에 불과하기에, 최고경영자 입장에서 대출보다 증자가 훨

씬 유리한 선택일 것이기 때문이다. A기업의 경영자 입장에서 자기 회사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계속 낮아지는데 시장금리가 상승하니, 대출보다는 증자가 훨씬 이익이 된다. 따라서 ‘만장일치’ 분위기가 조성될 때에는 금리 상승 및 주식 공급의 과잉이 출현하며, 이는 결국 주식 가격의 하락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만장일치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못지 않게 자주 불황을 일으키는 요인은 과잉 대출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02~2003년의 카드 위기인데, 2001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신용카드사들은 돈을 빌려왔다가 떼이는 신용 위험에 대해 매우 신경을 써 미국 신용카드사보다 연체율이 더 낮았다. 그러나 2000년을 고비로 카드 발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급격한 신용의 팽창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가 카드 사용 촉진 정책을 펼친 이유는 2000년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 둔화 때문이었다. 정보통신 거품이 붕괴되는 가운데 수출 경기가 나빠지자, 내수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카드 사용을 촉진했던 것이다. 단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이의 연체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

다. 2000년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7.7%이던 것이 2002년에는 8.6%까지 상승했다.

대출, 정확하게는 신용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연체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호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자마자 연체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이는 둘 중의 하나가 벌어진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2008년 미국처럼 신용도가 떨어지는 이에 대출이 제공된 것, 다른 하나는 기존의 대출자가 연체를 갚을 목적으로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 두 가지 모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된다. 대출로 대출을 막는 악순환에 빠져든 사람이나 기업이 극적으로 회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버티기 힘들다. 은행이나 카드사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이들이 고객에게 “대출금의 만기 연장이 어렵습니다”라고 통보할 때, 아무 문제없이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이나 가게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채의 증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 징후가 보일 때에는 주식시장 및 경제 여건이 건전한 상태인지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책발언대



윤창현 국회의원·국민의힘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말이 있다. 이는 미연방 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홀츠가 남긴 유명한 말로 이 문장은 미국 국세청(IRS) 건물의 전면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세금을 통해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국가 발전에 필요한 재정 지출을 할 수 있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몇 해 전 우리 경제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는 시장규모, 투자피해 등이 이슈가 견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나서야 앞뒤 맥락 없이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운다. 왠지 역할은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 어색한 느낌마저 든다.

가상자산 과세 ‘先정비 後과세’가 원칙

가상자산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수년째 시종일관 “모른다”였다.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닌 ‘그 무엇’일 뿐이라는 것. 법 테두리 밖에서 돌아다니는 투기시장이니 차부하고 돈을 잃든 벌든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거둬야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가 아니다.

서울이나 형식 등에 차이는 있으나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과세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는 ‘자산’, ‘금융상품’ 등 어떤 형태든 가상자산의 존재를 인정하고 관련 규제체계를 마련해 시장 안정 및 이용자 보호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우리와 결정적 차이가 있다.

지난달 28일 발표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만 해도 그렇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

는다며 책임 분산을 공식화했다. 그러더니 몇몇 언론에서 금융위가 가상자산 주무부처로 정해졌다고 보도하자 금융위는 ‘주무부처’가 아니라 ‘주관부처’라며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실무는 담당하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의미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과세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세금을 거둬 타이밍은 아니다. 우선 결정된 주무부처 주도하에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 정의, 거래소 플랫폼 투명화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별단속’과 같이 관계기관의 행정적 재량행위에 의존하는 형식이 아닌, 제대로 된 구체적 규제체계 마련을 통해 사각지대를 제거해야 한다.

필자는 무리한 과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달 1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를 시행하되 예정된 과세 계획을 일단 1년 유예하고 그 사이에 시장을 정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이 골자다. 물론 1년 뒤에도 준비가 미흡하다면 계속 유예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세 행정이 시작되기 전 시장이 정비되고 필요한 조치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가상자산은 현행법령상 금융 행위도 아니고 그 이용자들 역시 투자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일반 정보통신 서비스 수준의 기본적인 보호조치까지 외면해서는 안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상자산 관련 피해 금액이 5조5583억 원에 달한다. 이는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의한 피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선택(투자)에 대한 책임(손실)과 무관한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피해를 당하더라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뒤에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를 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부터 제공된 후에 과세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와 예의를 지키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브렛 버틀러 명언 “이루어질 꿈도 이루어지지 않을 꿈만큼 불확실할 수 있다.”

전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선수. 통산 타율 0.290으로 2375개의 안타와 558개의 도루를 만들었다. 사람들은 높은 출루율과 스피드, 역동적인 번팅을 보여준 그를 1980년대 최고의 선두타자 중 한 명으로 여긴다. 오늘은 그의 생일. 1957~.

☆ 고사성어 / 가계야치(家鷄野雉) ‘집에 있는 닭보다 들에 있는 꿩을 좋아한다’는 말. 가까이 있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멀리 있는 드문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동진(東晉)의 장수 유익(庾翼)은 왕희지(王羲之)와 명성을 같이 할 만한 명필가. 집안사람들조차 왕희지 필법을 배우기에 여념이 없자 그가 한 말. “아이들이 집안의 닭을 하찮게 여기고, 들판의 꿩만 사랑하여 모두 왕희지의 서법만 배우고 있으니 이는 나를 그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출전은 태평어람(太平御覽) 진중흥서(晉中興書).

☆ 시사상식/니치 마켓(niche market) ‘틈새시장’을 말한다. 수요가 비어있는 시장을 뜻하며, 이 시장에 경영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전략을 ‘니치 전략’이라고 한다.

☆ 속담/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 준비가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은 이르는 말이다.

☆ 유머 /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다 개가 고기를 물고 가져 개 주인인 변호사를 찾아갔다. “어떤 개가 제 정육점에 들어와 고기를 물고 갔다면 그 개 주인에게 고기 값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변호사는 당연하다고 했다. 정육점 주인이 당신네 개가 그랬다고 하자 변호사는 고기 값 5만 원에 위자료 1만 원을 얹어 주었다. 다음날 정육점 주인은 변호사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법률 상담료 50만 원 청구서.’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묻고 싶다. 무능이 악인가. 실력주의를 앞세우는 이 대표에겐 정해진 답변이 없다.

선과 악의 구분이란 중세적 특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K능력주의’는 선과 악의 흑백논리만 대중을 미혹하려 든다. 우선, 한국에서 드러나는 능력주의의 실상은 미국의 능력주의와 다르다. 학벌, 부모의 재산과 인맥 등을 간과한다. 개인의 능력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으로만 쌓아올린 금자탑이라고 여기며, 이를 공고화하려 한다. 능력이 영향을 주는 제3형의 요인들(성 정체성, 가정환경, 유전자 등)을 무시한 채 줄 세우기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는 사회적으로 참혹한 결과를 낳는다.

기자수첩



이꽃들 정치경제부/flowerslee@

무능이 악인가, 이준석에 묻는다

마이클 샌델은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능력주의 신화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미국 정치평론가 크리스토퍼 헤이즈 역시 저서 ‘똑똑함의 숭배’에서 능력주의란 인간의 능력이나 진취성이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새로운 계급, 즉 ‘재능의 귀

족’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 자체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다. 다만, 단일 잣대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위치가 능력에 의해 결정됐다는 점을 과하게 신봉하는 건 불평등 상황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바늘구멍을 넓혀 달라는 젊은 세대가 모든 할당제를 폐지한다는 이준석을 청년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띄우며 능력주의를 신봉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논의는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복지 확대를 통해 능력주의 결합을 대안 삼는 편 의 경우, 정도의 차이에 대한 논의가 숙성되지 않았다. 반면 능력주의가 온전하게 발휘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 또한 섞여 있다. 이 신임 당대표는 2019년 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신이 승자가 된 입지를 두고 “완벽하게 공정한 경쟁이었다”고 말했다. 그가 모토로 내세운 능력주의가 ‘시험 만능주의’에 그치지 않도록 논의에 더욱 앞장서길 바란다.

Table with 4 columns: 발행·인쇄인 김상우, 편집인 김상철, 주필 추창근, 편집국장 김중훈. Includes contact info for non-fiction, general, IT, and advertising departments, and address in Seoul.

유비무환

데스크칼럼

김문호
자본시장부장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거둬들이는 '긴축의 시간'을 준비하고 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이 조성되면 미 중앙은행(Fed) 관점에서 결국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국은 10년간 너무 낮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와 싸우고 있다. 정상적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나 홀로 '동결'을 외치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이 총재는 11일 한국은행 71주년 창립기념사에서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벌어질 후폭풍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금융시장 악화를 우려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면 장래의 잠재적 위험이 커질 것이고, 금리 인상 속도가 과도하면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온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서 세계 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고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IMF는 최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애초 1월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한 6.0%로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투자심리에 충격을 줄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고 경제지표들도 양호한 모습이지만 '테이퍼 탠트럼(긴축 발작)' 걱정이라는 심리적 요인만으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해외 의존도가 심한 국가인 한국으로서 주요국 통화당국이 공조하며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려 나가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발(發) 버블 붕괴의 전조로 생각되는 기술주의 부진,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 전망과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마저 제기되

고 있다. 한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코로나19라는 최악의 재난 속에서도 글로벌 경기가 이 정도로 버틴 데에는 저금리에 의존한 바가 크며, 생산성 향상이 아닌 막대한 돈 풀기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해 왔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대 경제 주체로 꼽히는 가계·비금융 기업·정부가 진 총부채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선진국은 151조 달러, 신흥국은 59조 달러에 달한다. 2019년 각각 137조 달러, 54조 달러에서 크게 늘었다. OECD는 "정부의 정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부실기업의 부채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경기가 둔화하고,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때 부채비율이 높은 곳에서 대규모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밝힌 "부풀었던 자산 가격이 꺼지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금리 인상에 들어오면 각국은 부채 수준에 따라 늘어나는 기존 부채의 재발행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자산 가격의 거품도 꺼질 게 분명하다.

한국 경제도 국제 금융시장 환경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수출과 경상수지 등 주요 경제지표가 양호하고 올해도 3.6% 내외의 경제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를 향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거센 통상 압박, 중국의 견제 및 좁아진 기술격차, 더딘 코로나 백신 보급 등 장밋빛 전망을 바라기에는 발목 잡힐 요인이 많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생산 능력 대비 생산 실적을 뜻하는 제조업 가동률지수(99.2)도 기계장비, 석유정제 등에서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전월 대비 1.4%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3.8%로 지난달과 비교해 1.1%포인트(p) 하락했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를 10% 이상 줄이는 디레버리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탄탄한 경기 상승기를 이 어갈 수 있었다. 반면에 우리 경제는 저금리를 이어가면서 가계나 기업이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을 하지 못해 금리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졌지만,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24조1000억 원에 달한다. 한국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지만,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181.1%로 지난해보다 18.0%포인트 올랐다. 그만큼 가계의 재무 상황 부담이 커진 것이다.

금리가 오르면 일차적 부담은 부채 의존도가 높은 자영업자나 한계가구 및 한계기업이 될 것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디레버리징 사이클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가 1%포인트(p) 높아지면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12조 원 가까이 불어난다.

최근 불거진 미국발 자산·금융시장 버블 붕괴 공포는 5월 수출 활황으로 잠시 안주해 있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메시지다. 세계 경제 위축, 글로벌 금리 상승 추세가 심화한다면 한국도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경고다. 거세지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맞춰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세상에 착한 금리는 없다. 닦을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실 위험이 있는 기업과 가계의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금융시장 불안을 막는 대비책을 재정비해야 한다. kmh@

사설

주 52시간제 영세기업 타격 외면만 할 건가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된다. 준비가 안 된 영세업체들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주 52시간 시행까지 겹쳐 심각한 타격을 피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경제계는 제도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준비기간을 줄 것과, 연장근로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보완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단체들은 영세기업들이 만성적 인력난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여건인데,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싶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실상 그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되기 시작해 올해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고,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확대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영세 제조업체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파악한 50인 미만 기업은 51만 6000곳이다. 이들은 그렇지 않아도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려 부족 인력만 20만 명을 넘는 실정이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특근과 잔업을 하지

못하면 인력이 줄어든다.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데 취업 희망자들의 영세기업 기피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비용부담 증대와 인력난의 악순환이다. 그동안 공백을 메워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확보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늘의 별따기'다.

중기중앙회가 최근 영세기업이 대다수인 주조·용접·열처리·금형 등 뿌리산업과 조선업 207개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44.0%가 아직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7.5%는 7월 이후에도 제도 준수가 어렵다고 답했다. 인력난에 주문예측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증대가 주된 이유로 꼽혔다.

경제단체들은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하청업 중심의 뿌리산업, 집중근로가 불가피한 연구개발형 창업기업에 대해서라도 준비기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 주문이 갑자기 늘어날 경우 대비할 특별연장근로 기간의 탄력적 운용, 다양한 산업현장 상황을 감안한 기존 1주단위 연장근로 제한을 월 단위나 연 단위로 바꾸는 제도개선 또한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산업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강행은 영세 제조업체들의 설 자리를 갈수록 좁히고 있다. 일자리만 더 줄어둘 수밖에 없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부작용만 키운다.

특허, 특!

매매 가능한 재산권, 특허

특허권은 지식재산권이다. 물건처럼 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물건을 빌리듯 실시권(License)을 받거나 아예 구매할 수도 있다. 에디슨은 특허권을 소유하고 GE를 경영했고, 테슬라는 자신의 교류모터 특허를 웨스팅하우스에 실시하도록 했다가 로열티를 포기함으로써 양도와 같은 효과를 갖게 했다. 특허와 관련되는 기술로 사업을 하려면 발명을 해서 특허권을 취득하든지, 실시권이든 기술 이전이든 특허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LG전자가 휴대전화 사업에서 철수하자, 특허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다면 국익을 해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2월 LG이노텍의 특허를 사들인 아일랜드의 특허관리회사가 4월 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은 이 주장의 강한 근거이다. 해당 특허는 휴대전화 무선충전기술에 관한 것으로, 계열 부품회사의 특허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LG전자의 특허가 외국에 넘어가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우려이다.

기업이 사업을 접을 때 보유 특허 전체를 경매 형식으로 판매하여 투자 금액 회

수를 극대화하는 전략은 10여 년 전에 나타났다. 2011년 캐나다의 통신장비회사 노텔이 파산하면서 전체 보유 특허를 45억 달러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연합에 판매하였다. 이때 구매에 실패했던 구글은摩托로라의 특허 인수에 40억 달러를 지불했다.

LG전자에 국익을 생각하라는 의견은 2019년 독일 벤츠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노키아를 모델로 하는 듯하다. 노키아는 휴대전화 사업을 포기하고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노키아도 일부 특허는 NPE에 넘겼으며, 당장 LG에너지솔루션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에서 국내 기업끼리 소송을 한 바 있다.

LG전자를 상대로 외국으로, 특히 중국으로 특허 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혹시 진행 중일지도 모를 협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 국내 기업이 LG전자 특허를 필요로 한다면, 구매하든지 실시권을 얻어야 한다. 특허는 매매 가능한 재산권이 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노트북을 열며

문선영
디지털미디어부 차장



진짜 '새로움'을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이 대표 개인은 어떻게. 그는 과연 새로운 인물일까. 단지 생물학적으로 젊다고 해서 그의 정치까지 젊은 것일까.

그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수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그에 대한 인상은 '참 영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이준석 돌풍'이 일기까지의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그 시작은 4·7재보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4·7재보선과 관련해 '민주당이 2030세대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하고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해 참패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재보선 패배 원인과 관련해선 수많은 분석이 있었지만, 이 대표의 분석은 매우 정확했다고 본다.

실제 2030이 4·7재보선에서 여야 승패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젠더' 문제가 이들의 민심을 갈랐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런 현상을 분석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잘 활용했다. 젠더 문제를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기성정치인·세대에게 돌리며 판을 키운 것이다. 정치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다. 대신 편을 갈라 갈등을 키우게 되

면 의외로 문제의 본질은 쉽게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면 정치는 쉬워진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포장지에 싸인 구태정치에 불과하다. 실제 그를 지지하지 않는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해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젊은 끈대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서슴없이 내놓는다.

이 대표는 분명 신선하다. 실제 자신의 상황이 어떻게 간에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여성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으려는 일부 정치인과 달리, 남성들이 받는 역차별을 말한 정치인은 이 대표가 처음이었다. 이런 행보에 2030 남성들도 폭발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하지만 한 정당의 대표는 특정 세대, 특정 성(性)만을 대표해서는 안 되는 자리다. 당장 할당제만 해도 그렇다. 할당제를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갈등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할당제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가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미약하나마 균형 잡게 하는 마지막 끈이다.

그가 정치인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가 아닌, 미래의 정치 지도자를 위한 정치인이 되길 바란다. moon@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0선'의 36세 젊은 정치인은 이제 보수의 '새로운' 상징이 됐다. 그의 당선은 그간 보수에 썩어졌던 구식, 낡음, 과거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일거에 해소했다. 미래와 새로움, 변화의 대변자로 나서게 된 그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한국 정치판 전체에 혁신을 가져올 인물로 떠올랐다.

이제 막 당선된 야당 대표에게 뭐 그리 큰 기대를 하느냐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기존 여의도의 불분율을 완전히 깨뜨린 이 대표의 당선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실제 당선 이후 이 대표는 기성 정치인들과 차별화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주요 당직에 다선·중선 의원 대신 초선 소장파 의원들을 내정하는가 하면,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현충원이 아닌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물론 첫 출근에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등장하며 다소 식상한 신선함도 연출했지만 말이다.

어찌 됐든 그의 등장이 여의도 정치판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K텔레콤의 AI 서비스가 새로운 생활을 만듭니다

우리 가족을 알아보고 지켜주는 집과
당신의 목소리 하나로 시작되는 서비스

누군가에겐 자신을 먼저 챙겨주는 가족이자
누군가에겐 다정한 친구이고 말벗

내 취향을 기억하고 추천해 주는 플랫폼부터
필요로 하기 전에 알아서 돕는 기술까지

모든 순간 AI가 함께 하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더 나은 모두의 생활을 위해
SK텔레콤은 당신 가까이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